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월 5일)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결혼 군승 전역 정당” ‘비구승’ 위상 강화 계기

대법원 19일 결정… ‘태고종 전종’ 파기환송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종 독신 예외조항을 삭제한 조계종 종헌 개정 이후 혼인한 군종장교에 대한 군종장교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조계종이 표방하는 ‘비구 군승’ 정체성 강화의 주요한 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월 19일 공군 군종장교(군법사) 출신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1999년 출가해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뒤 2005년 6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조계종은 2009년 3월 군종장교 독신 예외조항이 담긴 종헌을 개정, 조항을 삭제했다. 박 씨는 2011년 6월 결혼했으며 이를 파악한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헌 위반 사유로 승적을 박탈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종장교 전역 처분을 내렸다.

박 씨는 소송에서 2007년 12월부터 사실혼 관계였으며 조계종헌 개정 시점에는 해외연수로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독신으로 규정된 군종장교(군법사)의 자격과 운영에 대한 쟁점이 명확하게 정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현재 불교군종장교 파송의 주체는 조계종임이 재확인 됐다. 국방부는 1967년 조계종을 군종장교 요원 추천단체로 지정하고 조계종 추천을 받아 1기 불교군종장교를 선발했다. 1980년대 군승단 출범 이후 조계종 교구화 필요성도 제기돼 2005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탄생했고 추천권한을 지니고 있다.

53사단 흥국사 건립, 62사단 영평사 건립 등 군불사와 포교에 동참한 천태종은 독자파송을 추진했지만 2014년 국방부로부터 거절당했다. 현재 천태종과 진각종 등은 군종장교 파송이 아닌 법회 지원을 통한 개별 군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태고종으로 전종한 박 씨 등의 사례로 국가인권위는 2018년 군종장교 선발시 조계종만을 파송 주체로 보는 국방부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현재까지 조계종만을 파송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종헌이 바뀐 뒤인 2011년 박 씨가 결혼을 하였고, 4년간 이를 밝히지 않았지만 2015년 조사를 통해 결혼사실이 드러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군종장교로서 파송주체와 파송 당사자 간의 신의관계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2017년 승적이 제적된 박 씨는 태고종으로 승적을 옮기고 국방부 전역 조치에 “군종장교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현재 조계종 의식으로 통일된 상황서 종교행사 주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만약 파송주체가 여러 종단으로 늘더라도 임관 후 전종이 허용된다면 입맛에 맞는 규율을 가진 종단으로의 이동이 이어질 것”이라며 “임관 후 파송주체 규율을 따르지 않아 생기는 자격상실이 군종장교 신분에 영향이 없다면 군종장교 자체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 조계종으로 군종장교 임관 후 규율 위반으로 자격상실되면 군종장교직도 자격상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특별 2부 또한 군종장교 김 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상고심도 1심과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박 씨와 비슷한 사례인 김 씨의 경우 1998년 조계종 승적 취득 후 2005년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했으며 2014년 결혼했다.

조계종 승적이 박탈되자 태고종 승적을 취득한 김 씨는 박 씨와 달리 종헌 개정 전 사실혼인 점이

軍 파송주체 ‘조계종’ 재확인
사실혼 인정 떠나 ‘신의’ 주목
‘군승 정체성’ 강화 전기 될듯
“정체성 확립 맞춰 관리 필요”

인정됐다. 여기에 1심과 2심서는 태고종 승적으로 군종장교 활동이 가능한 점을 들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타종단으로의 전종 허용시 불러올 혼란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조계종 단일 파송체제와 불교군종장교의 군승 정체성에 대한 박 씨의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군종장교의 군승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에도 과제는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승법사는 “종단에서 군승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종헌 개정 전 결혼한 군법사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크다. 여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이들이 몇 명 더 있다. 종헌 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군법사들과 은연 중 종헌을 어긴 군승들, 성실히 비구군승으로서 임하고 있는 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고위직인 결혼한 군법사들이 전역한 이후 본격적으로 종단의 군승 정체성 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체성 확립에 맞춰 관리감독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 관계자는 “군승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방침에 맞춰 교구에서는 징계위 구성과 품위 유지 등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사회법에서도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특수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군종장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 조계사 선재어린이집은 설날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세배체험을 진행했다. 1월 22일 선재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세배체험에서 선재어린이집 아이들은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에게 세배했다. 세배를 받은 지현 스님은 아이들에게 덕담과 선물을 전했다. 사진은 체험 후 지현 스님과 아이들이 사부대중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바른불교’ 알릴 학술 단체 창립된다

(사)21세기 불교포럼, 오는 2월 22일 창립총회 열고 출범

초대 이사장에 강성용 교수
‘무진국제학술상’ 설립 · 운용
황경환 연구원이 사재 출연
“바른불교 알리는 통로될 것”


강성용 교수


황경환 선임연구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문화 · 학술단체가 새롭게 창립된다.

(사)21세기 불교포럼은 오는 2월 22일 오후 1시 30분 경주 경북신문 씨에로빌딩 4층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1세기 불교포럼 초대 이사장은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이며, 발기인으로는 김세곤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장 · 박상호 (주)경주ICS 이사 ·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 · 차상엽 前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 · 황경환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 함형석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21세기 불교포럼의 핵심사업은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와 연계돼 추진될 ‘KABS 무진국제학술상’ 운용이다. 무진국제학술상은 21세기 불교포럼이 창립될 수 있도록 자산 3000만원을 출연한 황경환 선임연구원의 법명인 ‘무진’에서 비롯됐다.

영어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진국제학술상은 매년 3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이를 시상할 계획이다. 박사학위 취득한지 5년 미만인 세계의 모든 불교학자들은 응모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를 진행한 무진국제학술상은 현재 제1회 수상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21세기불교포럼은 불교의 대중교육 및 학술단체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며 정기적인 포럼 및 대중강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인문학 발전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불교학자와 불교 활동가를 발굴 · 육성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사재를 출연한 황경환 선임연구원은 “오직 ‘바른불교’를 알리겠다는 서원으로 마음을 냈다”면서 “무진국제학술상은 바른불교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국제 수준의 논문을 통해 불교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한 한국불교학의 위상이 강화되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용 초대 이사장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원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21세기 불교포럼’을 창립한다”면서 “‘21세기 불교포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현실을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 한국불교와 불교학을 밝히는 불사인 ‘21세기 불교포럼’에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세기 불교포럼은 황경환 선임연구원이 출연금과 연간 운영금 5000만원으로 이뤄지며,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의 회비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교육기관 올해 안에 조정”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신년회견



상반기 내 각계기관 의견 청취
공청회 · 세미나 등 거쳐 案 도출
‘근본을 갖추는 승가교육’ 강조
“출가정신 바탕, 교과내용 조정”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자 감소로 인한 승가교육기관 조정을 올해 안에 결론 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원 사업 계획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승가 기초 · 기본교육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하심하는 초심수행자 시절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정확히 알아갈 때 환희심과 신심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한 감동으로 다시 사람들을 감화시킨다”면서 “기초 · 기본교육 재점검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학인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이 정확히 배어들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편집하고 교과목을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기본교육 필수 교과목인 포교 실천분야 7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한다. 또한 ‘초기불교의 이해’, ‘초기불전 I’, ‘한문불전 강독 I ~Ⅷ’은 학년별 1회에 한해 심화과목으로 중복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아직 계획단계이지만 종단 통일본 ‘불교 개론’ 검인정 교과서 제작도 추진한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전국 승가대학 간담회에서 교과목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교과목을 줄여도 기본 교육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고, 이에 맞춰 재편성하기로 했다”면서 “출가정신에 입각해 근본을 놓치지 않는 승가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맞춰 교과목의 내용과 과정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가자 감소의 여파인 승가교육기관 조정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승가교육기관 정비는 현재 종단 승가교육 종책 분야에서 최대 현안이다.

현재 불교계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았다. 한 해 출가인원이 120명 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감소 추세다. 조계종은 현재 사찰승가대학과 동국대 · 중앙승가대 등 17곳의 사미 · 사미니 기본교육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적정 교육 정원을 채우는 기관은 많지 않다. 앞선 6~7대 교육원 집행부에서 기관 수 조정을 거론한 적이 있지만, 본사 · 교육기관 등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 승가교육기관 조정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해지만, 이에 대한 절차를 밟은 적은 없었다”면서 “우선적으로 승가교육기관 학장, 강사, 학인 스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열고 공론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승가교육기관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대한 전체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안(案)을 도출하려 한다”면서 “일부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반기 내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올해 안에 결론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승가결사체 전법교화활동 강화, 출가 장려를 위한 사업들도 꾸준히 이뤄진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승가결사체는 포교, 대사회활동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결사공동체로 올해에는 27개로 확대돼 운영된다.

출가 장려를 위해서 교육원은 출가사이트를 채팅 상담과 모바일 기능을 도입해 리뉴얼하며, SNS 홍보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단적 T/F도 구성을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출가자 확대는 교육원만이 아니라 종단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출가자 확대를 위한 T/F 등 전문조직, 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승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가의 기초 · 기본교리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올해 교육원은 승가의 ‘전통교육방식’을 보존하면서 현대 사회에 빠르게 변해가는 정보들을 취합해 승가교육에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며 “교육원은 근본을 놓치지 않는 승가교육으로 사회가 신망하는 불교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민 삶의 질 높이도록 경제활성화에 힘 써달라”

원행 스님, 정세균 총리에 당부
17일 인사차 예방… 환담 나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활성화를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14일 취임한 정세균 총리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조계사)에서 스님들을 워낙 많이 뵈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고 인사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국회에서 큰 소임을 맡으셨는데 총리직을 수락하셔서 앞으로 풀어갈 일이 많으실 것 같다”고 화답했다. 스님은 이어 “총리께서 사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문제도 풀어야겠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경제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경제 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려 한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 현재 과도하게 갈등이 드러나 있어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간 종교지도자들께서 국민들의 화합에 기여해주신 것처럼 스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이에 공감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지만 협치가 필요할 때 종교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도들의 뜻을 모아 기여하겠다. 오는 4월 있을 총선도 잘 치러지도록 총리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공개 예방은 5분가량 진행됐으며,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7월에 첫 포교신도단체 결집대회”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신년회견

조계종 포교원이 신행혁신운동의 실천을 위해 ‘5대 수행법’ 보급에 본격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포교원 사업계획을 밝혔다. ‘신행혁신으로 생동하는 불교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7월 포교 · 신도단체 결집대회를 비롯한 5대 수행법 보급계획이 발표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포교원 사상 처음으로 포교 · 신도단체 결집대회를 열고 5대 수행법 보급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조계종 포교원은 7대 집행부 임기동안 신행혁신운동으로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의 5대 수행법을 정립, 수행일지 및 수행법 안내서 발간 등을 진행해왔다. 2019년에는 포교원, 중앙신도회, 신도단체 구성원들이 5대 수행법에 맞는 수행처를 순례하는 ‘수행바라미’를 통해 수행법 보급을 시작한 바 있다. 7월 말 개최 예정인 포교 · 신도단체 결집대회는 한국문화연수원을 비롯한 다수의 장소가 대상지로 논의 중이다. 또 10월 진행예정인 경승결집대회서도 5대 수행법 보급을 주제로 이뤄진다.

포교원은 이에 앞서 3월 포교 · 신도단체들과 월례회의를 도입해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3월과 11월 포교신도단체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며 5대 수행법 관련자료를 신행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10월 진행되는 〈불교성전〉 봉정과 함께 신도용 우리말 의례문 보급도 신행혁신운동의 연장선이다. 우리말 의례문은 공양과 문병, 문상, 성년, 임종, 결혼 등 관혼상제에 맞는 10종의 생활의례로 생애주기에 맞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지홍 스님은 “신행혁신운동은 생활수행이란 중요한 불교 신행문화의 변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7대 집행부에만 이러한 운동이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행문화 변화를 반영하고, 이끄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행혁신운동은 포교 · 신도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청년대학생 포교도 ‘5대 수행’ 보급을 골자로 전개한다.

먼저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어린이청소년위원회, 기획위원회, 실무위원회간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포교종책안을 마련한다. 6월에는 지도자 대상 연수를 진행하여 각 단체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청년 대학생 포교는 3월 5대 수행 관련 신행영상 공모, 8월 대학생 5대 수행 실참을 추진한다. 이밖에 2월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와 공모 협의해 9월 대학법당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2019년 원주지역을 시작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직장직능 불자회 추가 결성 지원과 5대 수행법 보급도 이뤄진다.

이 밖에 포교지도자들의 데이터도 통합관리 추진된다. 4월 포교사와 불교어린이지도사, 불교청소년지도사, 불교상담심리사, 불교명상지도사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정리를 시작으로 6월 통합종무프로그램에 입력, 통합관리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뉴미디어 콘텐츠 확산에도 나선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포교콘텐츠 통합플랫폼이다.

포교콘텐츠 통합플랫폼은 포교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해 사찰과 포교하는 신도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 신행정보센터 구축이 추진됐지만 모바일 환경 대두에 따라 계획이 변경됐다.

뉴미디어 포교를 위해 2019년 제1기 불교크리에이터 위촉으로 시작된 불교콘텐츠 확산 계획도 꾸준히 진행된다. 5월 2기 불교크리에이터 위촉과 함께 6월 1차 작가 템플스테이, 9월 2차와 3차 작가 템플스테이, 10월 작가 네트워크 파티 등이 이어진다.

지홍 스님은 “포교콘텐츠위원회를 통해 다년간 불교콘텐츠 양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UCC 공모사업 등을 통해 기존 성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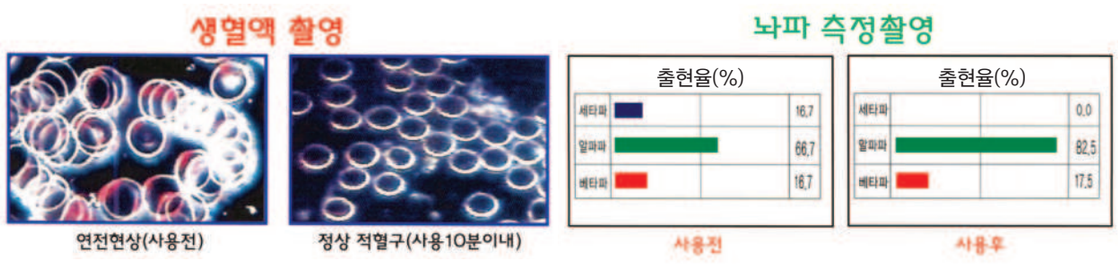


‘5대 수행법’ 보급 일환으로 개최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적용 계획
생활 밀접형 ‘우리말의례문’ 보급
포교콘텐츠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금강대 교직원 30% 해고… 내홍 장기화되나

금강대 1년간 전임교원 · 직원 17명 파면 · 해임

소청 · 노동위 징계 부당 판정
해고자들 "명분 없는 부당징계"
학교 측 "사유 분명, 소송 준비"
현 총장 사표… 신임총장 공모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천태종립 금강대가 지난 1년간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들을 30%가량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의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 징계처분 취소와 복직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어서 학내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중재해야 할 송희연 금강대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전임교원의 재임용탈락과 의원면직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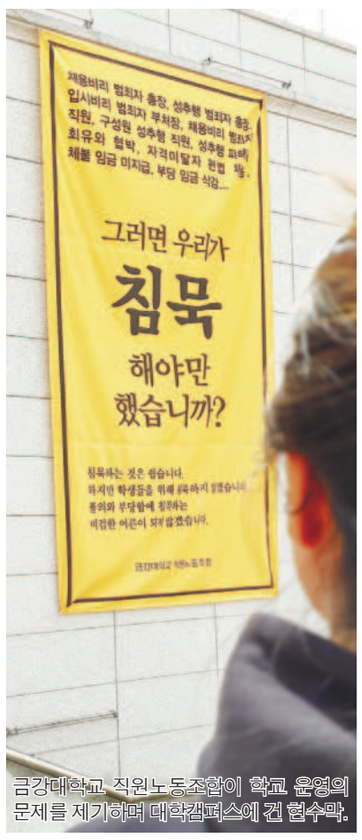
합의점 못 찾는 노사갈등

금강대의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 해임된 교직원은 전임교원 8명과 직원 9명 등 총 17명이다. 더불어 재임용 탈락 전임교원은 3명, 의원면직으로 학교를 떠난 전임교원은 5명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 2019년 기준 전임교원 21명, 일반직 직원 28명이 재직한 금강대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금강대 개교 초기부터 십수년간 교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중심 인력의 이탈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임교원 징계에서는 불교문화연구소 소속 교수 5명에 대한 파면 · 해임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은 금강대 인문한국(HK)지원사업 종료 후 전임교원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HK센터 복무규정에 적힌 '주중 전일제'를 이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를 적용,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된 교수들은 "HK교수 임용계약서를 썼지만 HK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HK센터 복무규정을 따를 이유가 없고, 교원인사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규정에는 교원의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HK교수를 포함한 연구전임교원과 강의전담교원 규정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된 교수들은 소청을 접수, 교원소청심사위는 1월 9일 학교 측의 파면 ·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불교문화연구소 교수 외에 일부 다른 교수들의 소청 또한 징계처분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HK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느껴 의도적으로 연구진을 내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HK사업은 10년간 정부가 HK교수 임금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대학이 정년트랙 임용으로 각 교수들의 임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HK사업을 수주한 대학들은 사업 종료 후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금강대는 지난 2017년 8월 사업이 종료됐다.



금강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갬퍼스에 건 현수막.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근태문제 등 HK교수들의 계약사항에 따른 징계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그 외 다른 징계교수들 역시 분명한 사유가 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총장마저 사임… 장기적 다툼 전망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에 대한 대부분의 파면 · 해임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로 판단, 해직자들의 복직과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했다. 학교 측은 이들이 언론과 천태종 말사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 · 서신 등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직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서신에는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를 탄압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중앙노동위는 일부 부정적 표현이 대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임총장들이 형사처벌 받은 점 등의 사례로 볼 때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와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어서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강대 관계자는 "학교의 징계가 과하다는 소청위와 노동위 판단을 불복하는 입장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해석이 다르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인력공백은 추가적인 채용을 통해 해결 중이다.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송희연 총장은 얼마 전 사표를 제출, 오는 2월 말까지 근무한다. 송 총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간 총장 소임을 맡았지만 나이도 고령이고, 휴식이 필요했다.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금강대는 1월 15일 신임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29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한다.

"공원일몰제 대책, 녹지 편의주의"

조계종 종단지도자포럼서, 서울시 행정 지적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사유지 보상 대책 마련으로 고심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대책이 녹지 편의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20 종단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 스님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이용남 실효대응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안내'라는 주제로 서울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2181개의 도시공원이 조성돼 있다. 서울시 면적 605㎢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이 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효되면 사유지 폐쇄나 등산로 이용 제한 등으로 도시공원 출입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결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낮아져 공원서비스의 질도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천명한 상태. 이 팀장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예산과 지방채, 국비 등으로 보상을 완료할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기존 재산세 50% 감면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설명에 스님들은 '녹지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림이고 자연공원제도를 갖추고 있어 전국의 큰 면적이 녹지로 활용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도시공원만을 강조하며 일몰제 실효로 기후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토지는 국가소유지만 사찰이 점유하는 사례도 있다. 종교성은 검토하지 않고 일반과 종교를 동일선상에서 보면 그동안 사찰이 해온 역할은 차치한 채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다"면서 "한편으론 녹지 우선주의나 편의주의로 보인다. 종교성을 감안해 행정 안목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천막결사 가르침대로 정진"

조계종 중앙종회, 상월선원 방문
종회의원 40여 명 정진 참여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위례 천막결사 상월선원에서 이뤄지는 9명 스님들의 정진 원만 회향을 기원하고 결사 정진 동참을 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1월 18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에서 용맹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수석부의장 장명 · 차석부의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상임분과위원장 등운 · 만당 · 상덕 스님, 종회의원 선광 · 성행 · 태진 · 혜도 · 진명 스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도 법회에 동참했다.

법회는 저녁예불과 반야심경 봉독, 고불문 낭독, 석가모니불 정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수석부의장 장명 스님은 법회 대중을 대표해 고불문을 낭독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쉼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모쪼록 원만 회향되길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며, 천막결사를 발화점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길 기원한다. 앞으로 천막결사의 가르침 그대로 게으름 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왼쪽 첫 번째)을 비롯한 종회의원들이 상월선원 정진에 동참한 모습.

동참 종회의원 스님과 대중들의 결의 발언도 이어졌다. 차석부의장 법원 스님은 "20여 년 전 군법사 시절 이곳은 공수특전단 법당으로서 선배님이 법사로 활동해 도움을 드리러 자주 왔었다. 이제 강산이 두 번 변화해 신도시가 들어서고 새로운 불사가 시작되려 한다"면서 "지금 아홉 스님들이 한국불교 변화를 위한 희망을 심고 있다.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결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상월선원의 총도감이자 중앙종회의원인 혜일 스님은 "현재 아홉 스님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내부상황을 전했다. 특히 동안거 결사가 약 70일이 지나며 스님들의 건강상태는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전에는 한 스님이 의식을 잃는 긴급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 법회 대중들은 석가모니불 정근, 신묘장구대다라니 21송을 한 뒤 좌선에 들었다.

위례=신성민 기자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 현 주지 허운 스님 추대

1월 21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후보로 현 주지 허운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관음사는 1월 21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허운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운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허운 스님은 "지난 4년은 제주지역에 적응하는 시기였다. 또한 임기동안 관음사와 교구 발전을 위한 구상을 해왔다"며 "교구본사 위상 확립 등 생각해온 구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장 신도시포교종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고, 2016년 3월부터 제주 관음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개금불사 모연문



삼보님전에 귀의하옵고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자리잡고 있는 동명불원은 고 강석진 회장의 원력으로 1977년에 창건되어 대웅전에 석가모니불, 제화갈라보살, 미륵보살 삼존불을 봉안하고 불자들의 청정한 기도·수행정진 공간으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경대상인 삼존불의 성상이 세월의 흐름속에 금분이 많이 탈색되었습니다. 이에 동명불원에서는 사부대중의 힘을 모아 삼존불에 새옷을 입혀드리는 개금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개금불사는 진리의 옷으로 부처님을 장엄하는 의식이며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공양입니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가운데 개금하는 공덕보다 나은 공덕은 없습니다.

삼존불을 새롭게 장엄하는 개금불사 모연에 동참하시어 세세생생 복전이 될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재)부산동명불원 이 사 장 박영근 / 주 지 승 찬 합 장 / 신도회장 성재곤

(재)부산동명불원개금추진위원장 이재동

개금불사 모연 동참안내 ● 문의/접수 : 종무소 051)626-4337, 624-7667 ● 동참보시(은행구좌) : 부산은행 036-01-037861-9 (재)부산동명불원

"교사 행복, 교육현장에 큰 영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교사 마음공부 돕는 연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이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초대해 '교사의 행복찾기 · 서로를 살리는 공생 교실'을 개최했다.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스스로 마음의 힘을 알고 자신을 바르게 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연수는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등 23명이 동참했으며 강의뿐 아니라 실습과 토론 등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호응을 얻었다. 한마음과학원의 전문 강사진들이 맡은 프로그램은 크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과 관계 속 대화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 시간으로 이뤄졌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져 5일 동안 진행된 연수는 △내면을 향하여 △내 마음 들여다보기 △내 인생의 드라마-마음 찾기 △교사로서의 '나' 내 마음의 주인 되기 △마음을 여는 대화 △마음의 원리로 접근하는 학생지도 △촛불명상 △마음의 통신 △공생의 삶 △마음의 활용 △행복한 교사, 행복한 교실 △변화하는 나 등의 교과목을 다뤘다.

한마음과학원 혜찬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혜벽 스님, 황수경 동국대 교수, 박종래 서울대 교수, 이양희 동덕여대 명예교수, 정상만 철학박사, 우순열 다도 지도사 등 전문 강사들은 각 교과목에 맞는 전문 내용을 쉽게 풀어 전달했으며, 전 · 현직 교사인 강사들은 직접 마음법을 적용한 현장 사례 경험을

유치원 · 초중등 교사 23명 참가
4박5일간 강연 · 실습 등 체험해
마음법 적용한 현장사례 공유도
만족도 높아 후속 모임도 결성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력했다.

소감문에서 한 교사는 "개인적으로 힘든 업무와 가정생활에서 소소한 갈등으로 피폐해진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참석하게 됐다"며 "연수가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변했다는 말을 아이들에게서 들었다. 앞으로도 마음공부를 하고 싶다. 그동안 잊고 무시해왔던 내 마음의 힘과 가치를 되찾는 값진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이 눈을 가린 채 스님의 지도에 따라 촛불명상을 체험하고 있다.

다른 한 교사는 "지난여름 방학 연수에 참가했던 교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참여했다"며 "모든 프로그램이 정성스럽게 진행돼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와보니 어느 연수보다 정성이 가득했고 마음을 다해 도와주시는 모습에 나 역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다회에서는 찻자리를 마련해 차공양을 올렸으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에서는 연수가 열리는 5일간의 공양을 위해 팀을 짜고 식단 회의, 공양 준비 등 일체를 도맡아 정성을 기울였다. 오직 인재불사를 위해 교사 연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마련된 연수였기에 이번 연수의 의미는 더욱 크다. 특히 이번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발적인 후속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고 2월초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일이다. 그러므로 교사들 한 분 한 분이 내면의 힘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인재 불사라 믿고 있다"며 "앞으로 교사 연수를 위한 연구 모임을 만들어 행복한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공생 교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소자도 함께 느낀 명절 분위기

군산 성흥사, 군산교도소 설 차례 · 교화공연



군산 성흥사(주지 보위)가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산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설 차례 및 교화공연을 개최했다.〈사진〉 성흥사가 주관하고 마이산 탑사,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마하연 승가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관음선원 영전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 법문, 격려사, 영치금 전달, 설 차례, 교화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혹독한 어려움을 인욕으로 극복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 법전 스님과 지오 스님, 현진 스님은 재소자들이 차례를 지내는 동안 작법과 범패로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송월 스님은 모범재소자 10명에게 영치금을 전달했으며 재소자들에게는 떡과 과일, 음료수 등 간식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사랑으로 신년하례식

창원불교연합회, 성금 5000만원 사랑의열매에



명절 설을 맞아 창원불교연합회가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신년하례식을 봉행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1월 17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30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풍성한 나눔으로 장식됐다. 이날 창원불교연합회와 금강자비회는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그리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금강장학금 등 총 성금 5000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사진〉

회장 월도 스님은 "30년 동안 이어온 자비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오늘 이 행사가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이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월도 스님 등 창원불교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 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이주영 · 여영국 국회의원, 한철수 창원상의회장, 하충식 창원 한마음병원 이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국불교승가회 심장병 환우 성금 전달

대한국불교승가회(총무원장 성보)는 1월 15일 불광사 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시무식에는 원로위원 석산 스님을 비롯한 각 지구교구 종무원장과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한국불교승가회는 선천성 심장병 성금 50만원을 사랑실은교통봉사대에 전달했다.

총무원장 성보 스님은 "사회에 여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잊지 않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깊이 새기며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이 책임진 지역복지 30년

경남 창원 수산자비선원 창건 30주년 기념법회


30년간 지역복지에 앞장선 창원 수산자비선원의 30주년 기념법회.

창원에서 지역 복지와 나눔을 실천하며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수산자비선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주지 법상 스님은 포교와 복지로 불국토를 이루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창원 수산자비선원(주지 법상)은 1월 21일 선원 내 법당에서 '창건 30주년 기념법회 및 천도재'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세계불교 교황 가산 스님, 주지 법상 스님 등 스님 50여 명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민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천도재는 30년 동안 이어온 인연들을 위한 행사로 사단법인 수산자비선원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자비요양병원 등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낸 사람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됐다.

법상 스님은 "30년 동안 도심 포교를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복지와 나눔의 공동체로 목숨이 다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수산자비선원은 1989년 6월 개원했다. 이후 노숙자를 위한 공간으로 회향하며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무료급식을 시작으로 전문 복지 활동을 위해 법인을 창립하고 자비요양병원 및 어르신 요양시설 자비마을과 병원을 운영했다.

법상 스님은 지난 7월 1일 복지나눔의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불교평화대상 시상식서 평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 종교복지 공로대상 및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새해 자비나눔으로 문 연 광주불교

동구불교協, 백미 · 장학금 전달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소운)는 1월 19일 광주 수자타 2층에서 '광주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경자년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100여 명의 동구지역 사찰 주지스님과 정관계 인사,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된 행사는 1부 법요식과 통알, 기념법문,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소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 동구민의 평안과 불교발전을 기원하며, 모두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前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은 기념법문에서 "불교를 믿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불자들이 적극적인 수행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광주 동구청에 자비나눔 쌀 1000kg, 청소년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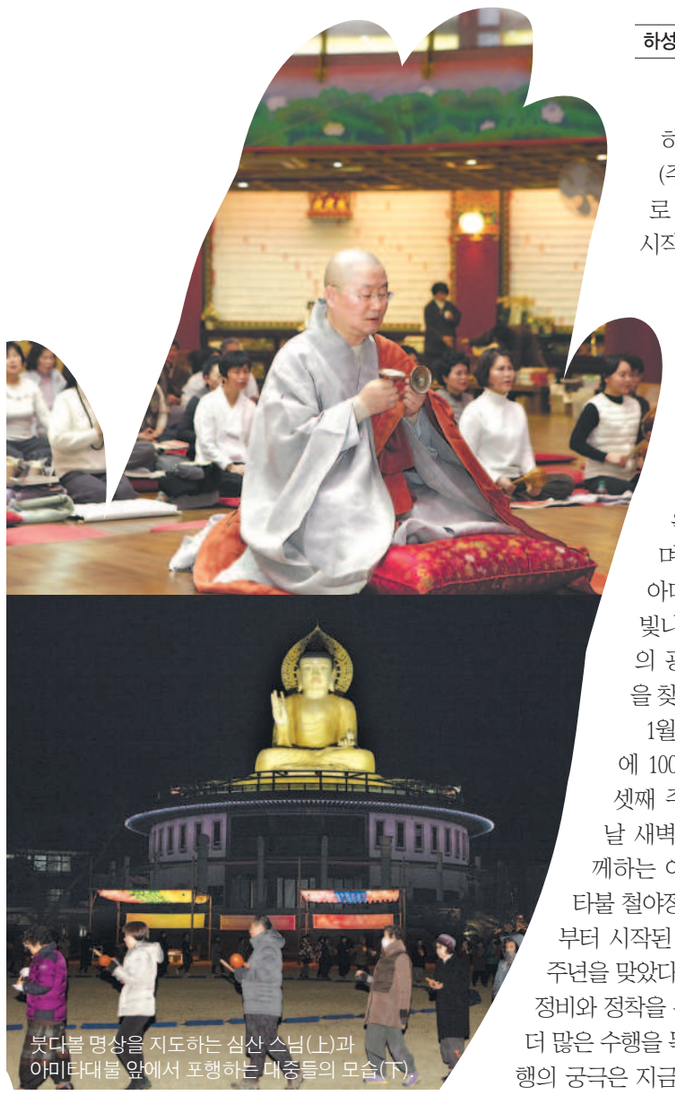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 모인 100여 대중이 주지 스님과 함께 목탁을 치며 아미타불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명호를 부르는 불자 대중의 얼굴이 환희로 가득차 보인다.

부산 홍법사 '아미타불 철야정진' 현장

"나무아미타불"… 이곳이 '서방정토'



붓다볼 명상을 지도하는 심산 스님(上)과 아미타대불 앞에서 포행하는 대중들의 모습(下)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아미타불 철야정진 1주년 맞아
붓다볼 명상 프로그램 병행해
홍법사 외 모든 불자 동참 개방

"자신 낮추고 상대 높이는 마음
그 마음이 극락을 이루는 마음,
지금 사는 이 자리가 극락정토"

어둠 속에서 아미타대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다. 아미타대불 아래로 홍법사 염불행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목탁과 붓다볼(싱잉볼) 등을 나누어 든 대중은 극락정토를 염원하는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한걸음 한걸음 경내를 걷기 시작했다. 염불소리를 따라 붓다볼의 맑은 울림이 시방으로 퍼져가고, 대중은 한걸음 한걸음 극락정토를 염원하며 걸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아미타대불의 광명은 더욱 밝게 빛나고 대중의 염원도 아미타대불의 광명처럼 시방의 어두운 곳곳을 찾아간다.

1월 18일 밤 9시 홍법사 대광명전에 100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열리는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아미타불 철야정진(이하 아미타불 철야정진)'을 위해서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아미타불 철야정진 법회가 1주년을 맞았다. 대중은 지난 한 해를 법회의 정비와 정착을 위해 정진했고, 올해는 변화와 더 많은 수행을 목표로 정진한다. 그리고 그 수행의 궁극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극락정토를 이루는 것이다.

대중은 천수경과 백팔대참회문에 맞춰 108배를 올렸다. 108배가 끝난 후 주지 심산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미천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심산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기도문을 인용하며 올바른 기도에 대한 설법을 이어갔다. 스님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곧 기도다"며 "이 마음이 극락을 이루는 마음이며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바로 당신이 아미타부처님이다"고 설법했다.

30분의 설법이 끝나고 대중은 대북과 징 그리고 목탁, 경쇠, 붓다볼 등 각자의 법구를 들고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 시작했다. 법구들의 울림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대중의 목소리는 한목소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었고, 서로를 돕는 힘찬 염불소리로 수행의 현장은 뜨거워졌다. 신이 난 불자들의 고성염불은 마치 노래처럼 들려왔고 대중은 염불삼매를 향해 정진을 이어갔다. 이내 대중의 얼굴은 환희심으로 가득 차고 법당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로 가득 찼다.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대중은 가벼운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하게 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갔다. 천천히 경행을 하며 다시 아미타부처님을 불렀다. 경행을 마친 대중은 잔디마당에 둥글게 둘러앉아 명상으로 철야정진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잠시 휴식 후 다시 수행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아미타경〉 독경으로 참된 극락을 이해하고 아미타 48대원을 서원하며 밤새 염불을 이어갔다.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 철야정진이지만 수행에 참여한 대중은 오히려 철야정진을 통해 한 달 동안 살아갈 힘을 얻어간다고 했다.

1년 동안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한 박은경(49 · 부산 연제구) 씨는 기도 동참 당시 가족들의 만류가 있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박 씨가 암 투병 중이었고, 기도 동참 다음 날에는 어린이법회 봉사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는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한 달 후의 다음 철야정진이 기다려질 정도로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아미타기도는 제 자신이 정화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워킹맘으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어린이법회 봉사까지 하고 있지만 피곤함보다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불자들도 좋은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영자 아미타기도회 회장은 "홍법사 아미타불 철야정진은 홍법사 불자들뿐 아니라 부산과 인근 지역 모든 불자들에게 열린 기도 모임이다"고 말했다.

홍법사 아미타불 철야정진은 붓다볼 명상을 함께 진행한다. 붓다볼은 일명 '싱잉볼'로 불리는 명상 도구이지만 홍법사는 '도구'가 아닌 '법구'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산 스님은 "붓다볼은 일반적으로 싱잉볼로 불린다. 붓다볼 명상이 주는 유익함을 연구하고 널리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며 "붓다볼 명상을 통해 아미타기도의 참된 가르침을 전할 계획이다"고 했다.

홍법사는 붓다볼 명상을 위해 전문 수행 공간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홍법사는 붓다볼 명상을 강조하며 매주 둘째 주 화요일에 불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나래평생교육원에서는 3월 첫째 주부터 15주간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수업은 중급반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이며, 초급반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으로, 평생교육원에서 각각 열린다.

홍법사는 지속적으로 기도와 명상 그리고 염불수행으로 극락세계를 열어갈 계획이다. 심산 스님은 "홍법사에 처음으로 아미타대불을 모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재를 떠올렸다"며 "하지만 처음 불사를 할 때 마음 속 깊이 낸 원력은 '이곳을 극락 같이 살아가자'란 취지였다. 아미타대불을 보며 모두가 극락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20년 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 현불 논단 |

해상 실크로드와 가야불교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 정부 가야사 재조명 노력에
'가야불교' 관심 높아지는 상황

육로 통한 불교 전래 일반 인식
한반도 끝 가야까지 적용은 의문
해상통한 전래가 더 신빙성 있어

석굴 등 흔적 남은 육로와는 달리
해상을 통한 교류, 유적 남지않아
가야 연구 '해상 실크로드' 추가를

현 정부 들어 가야사를 재조명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심에 비해서 가야불교의 실체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불교의 한반도 전래를 북방으로부터 육로를 통한 것으로 보려는 고정된 시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도로부터 동아시아로의 불교 전래를 파미르고원을 넘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횡단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생각해왔다. 현대의 실증주의적 학문풍토에서 육상 실크로드는 매력적인 분야이다. 고대 무역루트의 주변에 산재한 도시유적과 석굴사원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상품과 문화와 종교가 이동한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가 동아시아와 만났고 수없이 많은 상품들의 교류와 함께 불교가 한반도에까지 전래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한반도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가야 문화권에까지도 이러한 공식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의 서쪽 변경에 있었던 월지가 인도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개척했다.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이집트의 홍해 연안과 남인도는 향신료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다.

인도양은 무역풍으로 알려진 몬순 계절풍이 부는 곳으로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을 달라진다. 주로 4~9월 사이에는 바람이 남서쪽에서 동북쪽으로 불고, 11~2월 사이에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부는 것이다. 계절풍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인들은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이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상품뿐만 아니라 종교와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인도 남동부와 스리랑카를 출발한 무역선들은 몬순 계절풍을 타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 남부의 광저우를 향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교와 힌두교 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불교는 해상실크로드 최고의 상품으로서 몬순 계절풍을 타고 동남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전래됐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는 이러한 해상 무역루트의 동쪽 끝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상 실크로드는 육상 실크로드와 달리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교류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이 60세에 중국을 출발하여 인도를 순례하고 413년 돌아온 법현의 귀국 항로가 〈불국기〉에 남아있다. 그는 동인도의 갠지스강 하구에서 걸어서 2년이 걸리는 스리랑카에 무역선을 타고 몬순 계절풍과 함께 2주만에 도착했다. 약 2년 정도 머무른 후 다시 무역선을 타고 3달 걸려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또는 자바의 작은 힌두왕국에 도착했다. 그는 즉시 다른 무역선에 올랐고 약 3달 정도 걸려서 중국 산동성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일 법현이 탄 무역선이 방향을 조금만 동쪽으로 잡았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이 배는 한반도 남단에 도착했을 것이다. 당시 한반도 남단의 가야는 철기를 만드는 중간원료인 철정을 낙랑 · 대방 ·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부유한 해상무역왕국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는 가야가 해상 실크로드의 일부로서 해상 무역루트를 통해 남방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가야불교의 원형탐색에 해상 실크로드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남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해양문화 속에서 불교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봐야할 때가 온 것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설법, 불교의 생명줄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집안은 절손(絶孫)이 되어 가문은 문을 닫는다. 불교교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 포교하여 불자가 생겨나야지 불법이 계승 발전할 수 있다. 전법 포교가 교단을 유지 발전시키는 제일 요건이다.

포교 방법은 연설로 하는 강연 설법, 경전을 번역하거나 해설하여 유포하는 문서포교, 복지 자선사업 등이 있으나 연설로 하는 강연 설법이 중심이다.

인간은 언어문자를 발명하여 상호 의사를 소통하고, 인간이 이룩한 문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하여 계승 발전시켜 위대한 인간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적 동물로 언어문자는 인간이 이룩한 문화의 금자탑이다. 전교 설법은 언어문자를 통해서 한다.

이웃종교에서는 입교해서 3일만 돼도 입만 열면 자신들의 종교의 말씀을 전도한다.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다.

부처님께서 '전법선언'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최초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부루나를 위시한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 부처님의 전법 교시(敎示)를 받들어 오늘날 불교가 세계종교가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

설법은 불교교단의 존망성쇠를 가름하는 생명줄이다. 만해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세력이 부진한 것은 포교가 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고, 포교가 성행하면 세력이 늘고 세력이 늘면 사람이 늘어나서 포교가 쉽게 이뤄진다"고 하였다.

전법선언서 부처님 전법교시
현재 세계 종교 발전 기틀돼

만해는 "선(禪)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고, 교(敎)는 중생 교화를 위한 길이다"고 하였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요, 깨달음과 중생교화가 둘이 아니다. 어찌 우리 불교는 깨달음을 위한 안거(安居)는 길고, 전법 교화는 소홀한 것인가.

높은 산을 등산할 때 먼저 등반했던 사람의 축적된 정보나 정확한 안내는 생명을 지켜주듯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잘 전달하는 법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학대학에서는 학과나 교육과정에서 '설교학', '목회학', '목회상담학' 등 과목이 중심인데, 우리는 '설법학', '포교학'의 명칭도 없고, 교육과정도 없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가 불교대학을 다닐 때 불교학과 법우들과 '부루나 전철 전법단'을 조직하여 동대문역에서 구로역까지 전철 안에서 실제로 설법을 연수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전법 경험의 원력과 뚝심은 삼십칠 년 동안 불교종립학교에서 교법사,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큰 힘이 되었다.

천학비재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불교의 설법론'에 대하여 집필해보려는 원력을 세운 것은 그동안 입은 불은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법 현장에서 설법을 하는 스님, 재가법사, 일반 불자들이 청법(聽法) 대중에게 알기 쉽고, 유익하고 흥미롭게 설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대하여 하나의 '설법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겠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신행혁신, 종단 적극 관심을…

조계종 포교원 제7대 집행부가 2016년 구성 이후 4년차를 맞았다. 1월 22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 아젠다 제시보다 7대 포교원 출범과 동시에 내걸은 '신행혁신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실천하는 등 기존 종책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7대 포교원이 기치로 내건 '신행혁신운동'은 기복 중심의 사찰문화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며 실천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기여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실천에는 많은 한계가 따르고 있다.

계율, 간경, 염불, 참선, 보살행이란 5대 수행법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안내서적 등을 만들어 배포 중에 있지만 종단 주요인사들 등 포교원의 영향이 미친 곳 일부에서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변화가 일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불교 신행문화를 바꾸는 것이 현재는 포교원만의 임무로 한정되어 있다는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포교원이 아무리 신행혁신을 부르짖고 사찰을 다니며 신행혁신을 설하는 법회를 열어도 사찰의 주요 스님들에서 그래도 기도문화를 없앨 순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신행혁신과 같은 불교 전반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포교원뿐만 아니라 종단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포교원 내에서도 현 집행부 이후 집행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포교원에서는 '5대 결사' '환희와 감동의 포교' 등 각 집행부마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5년마다 신행과 포교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거시적인 차원의 포교, 신행변화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다.

양질의 '불교학술상' 확대되길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문화 · 학술단체가 새롭게 창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21세기 불교포럼은 오는 2월 22일 경주 경북신문 씨에로 빌딩 4층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21세기 불교포럼은 핵심사업은 불교 대중교육과 학술단체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정기적인 포럼과 대중강연으로 지역사회와 인문학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국제적 역량을 갖춘 불교 인재 발굴 · 육성도 이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롭게 조성 · 운용되는 'KABS 무진국제학술상'이다. 불교학연구회와 연계돼 진행되는 무진국제학술상은 영어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3편의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박사학위 취득한지 5년 미만인 세계의 모든 불교학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열린 학술상이다. 이 같은 불교학술상은 한국불교학 위상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진국제학술상의 제정으로 한국불교학계는 주요한 학술상을 추가하게 됐다. 최근 이 같은 학술상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국불교학회에선 월정사 등과 연계해 한암 · 탄허 학술상과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이 발원한 성운학술상을 제정 · 운영 중이며 대한불교진흥원의 원효학술상, 대행선연구원의 묘공학술상 등도 유수의 학술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양질의 불교학술상이 많아져야 새로운 불교학 연구자를 발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불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인재불사의 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팩스 031)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실크로드 중심 '위구르 佛畫' 총망라



주목! 학술서 - 조성금의 〈위구르 왕국 불교회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투르판과 쿠챠, 인도-파키스탄 분쟁지 카슈미르는 동서 문명의 교차로 실크로드 중심에 있었고, 수많은 소국(小國)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영욕의 역사 한복판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에는 고창국이나 천산위구르 왕국 같은 불교문화를 발전시킨 왕국들이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베제클릭 석굴 등 다양한 석굴사원이 조성됐고, 이 안에는 다양한 도상의 불교회화들이 그려졌다. 불교회화들은 경전을 근거로 조성되는 만큼 투르판, 쿠챠 등 중앙아시아에 남아 있는 불화들은 그 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같은 중앙아시아 불교회화를 총망라한 연구서가 발간됐다.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전문가인 조성금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는 최근 〈실크로드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이하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를 내놨다.

이는 조성금 객원교수의 동국대 박사논문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 를 확장 · 보완한 것으로, 위구르 왕국의 개요부터 미륵 · 관음 등 주요 도상의 전문적 분석까지 위구르 왕국 불화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저자는 중앙아시아 미술의 중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교문화 동점(東漸) 과정의 횡적 연계성을 밝혀내고 있다.

중앙亞 미술학자 연구 성과 정리

투르판 · 쿠챠 지역 불교회화 조사

미륵 · 관음 등 도상 분류 · 분석 통해

동아시아 불화 東漸 연계성 확인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불화 도상들을 분류하고 조성 근거가 되는 경전들을 찾아 분석한 두 번째 챕터다. 저자는 투르판 출토 '불설예수시왕칠경변상도', 북정 서대사 '미륵상생경변상도', '천수천안관세음보살도', 베제클릭 20굴 '비나야약사변상도', 베제클릭 18굴 '소제재난경변상도', 교하고성 출토 '귀자모도' 의 도상을 분석하며 해당 도상들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반으로 동점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러시아 예르미타시 미술관 소장 '천수천안관세음보살도' 의 모습. 2009년 저자가 국내에 소개하기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불화다.

현재까지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19세기 초 서구 열강 탐험대들이 붙인 불화의 제목과 소의경전과의 관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조성금 객원교수는 불화와 경전에 집중해 새로이 도상과 도상학을 제시했다. 여기에 풍부한 관련 도판과 충실한 주석 · 지도 · 부록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조성금 객원교수는 "돈황 및 중원과 다른 경변상도가 천산 위구르 왕국 지역에 나타났고, 그 도상 역시 다양하게 표현됐다"면서 "이는 실크로드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로서 많은 종교와 다양한 도상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화 원류의 일컨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조성금 객원교수의 설명이다. "천산 위구르 지역의 불교회화 연구는 현재까지의 몇몇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중앙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회화 전반에 걸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불화는 현재까지도 도상 및 도상학적 기원이 불명확한 한국 · 중국 · 일본 불교회화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불국정토' 성보들 만나볼까

국립중앙博, 불교회화실 정기교체

1월 21일부터 새 전시품 선보여

'정토' 주제 회화 · 경전 등 전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품을 교체했다. '청정한 이상향, 정토(淨土)' 를 주제로 한 이번 정기교체는 옛 사람들이 그렸던 정토의 모습을 담고 있는 불교회화와 경전, 사경 등의 새로운 유물들을 선보인다.

아미타불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그린 '극락에서 강림하는 아미타불' 은 정토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섬세한 금니로 그려진 아미타삼존의 주위에는 비파, 장고, 소라로 만든 법라(法螺) 등 여러 가지 악기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내는 만 가지 악기가 연주되는 극락정토의 공감각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부처를 모신 작은 집' 은 부처님이 머무는 찬란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 부처님과 두 보살을 중심으로 뒤쪽에는 상서로운 기운을 내뿜는 나무와 누각, 앞에는 네 마리의 새가 앉아있는 연못 전경이 새겨져있다. 원래 전각을 축소시켜 놓은 작은 불당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은 부처님이 머무는 공간을 중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부처를 모신 작은 집' 의 모습. 조선시대 작품으로 금동으로 제작됐다. 부처님이 머무는 공간을 중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음악이 있고 부처님이 머무는 정토에서의 즐거움은 단순히 감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기쁨이 큰 고차원적인 즐거움이다. 석가모니불과 그의 설법이 참된 진리임을 찬탄하는 다보불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아미타불이 그려진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 은 그 고차원적인 즐거움의 세계를 보여준다.

많은 대중이 원하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기도 하다. 일본 '왕생자를 맞이하는 아미타불' 은 극락에서 태어날 사람(왕생자)을 맞이하기 위해 아미타불이 여러 보살을 이끌고 강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죽은 영혼이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는 의식용 불화 '감로를 베풀어 아귀를 구함' 은 아귀도에 떨어진 영혼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식을 베푸는 장면을 담고 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영혼을 상징하는 아귀와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보살들이 함께 등장한다. 그림의 뒷면에는 주문과 진언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불화에 고대인도 문자인 범자나 진언을 적어서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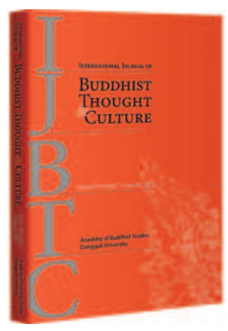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아미타불의 공덕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설명한 '정토신앙의 근본이 되는 경전', 극락으로 안내하는 아미타불과 인로왕번을 그린 '극락으로 인도하는 배', 극락왕생을 바라며 왕실 기도처에 봉안한 '지장삼존도', '가족의 명복을 발원한 ' 화엄경 사경 ' 등 23점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정토의 전경과 정토로 인도해주는 불보살의 모습은 청정한 이상향을 원한 대중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정토를 꿈꾸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정토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서도 집착이 없어서 행복한 이상향이다. 이번에 새롭게 교체되는 전시품을 통해 번뇌와 집착 없이 즐거움만 가득한 정토에 잠시 머물러 보면 어떨까.

박재완 기자

'판비량론과 불교논리학' 최신 연구 성과 '한눈에'

동국대 불교학술원, 'IJBTC' 발간



신라 고승 원효 스님의 저술인 〈판비량론〉과 불교논리학의 최신 연구성과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저널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국내 유일 국제 영문 불교학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공동편집장 김종욱 · 리차드 맥브라이드, 이하 IJBTC) 권29 2호를 발간했다.

국내(KCI) 및 국제(Atla 및 ESCI) 주요 학술지로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IJBTC〉 최신호에는 '판비량론과 불교논리학(P' anpiryangnon and the Buddhist Logic)' 를 주제로 한 특집 논문(4편)과 일반 연구논문(4편), 서평(2편) 등이 게재됐다.

이번 저널에 참여한 집필자들은 해당 국가의 역사, 철학, 불교학의 명문인 독일 칼스루헤 공과대와 중국 푸단대, 인도 델리대, 영국 체스터대, 캐나다 맥길대, 러시아 국립고등경제연구원, 미국 콜롬비아대 등 소속 대표연구자들로 국제적 다양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들이다.

이번 특집 주제인 '판비량론과 불교논리학' 을 통해서는 원효의 사상과 불교논리학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만날 수 있다.

원효 스님이 저술한 〈판비량론〉은 불교논리학을 다루고 있는데, 인도의 중관과 유식 사상이 동아시아에 흡수 정착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후 〈판비량론〉은 일본에 전해지며 문헌의 필사본은 구카이(弘法)대사의 친필로 존중돼 여러 단간으로 일본 전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오늘날은 오타니 대학 소장본이 판비량론 전체 분량의 1/8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아직도 출처 미상의 단간 상태로 일본 각지에 남아 있다.

불교학술원은 "〈판비량론〉과 불교논리학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에 근거한 논문을 통해 원효의 사상과 불교논리학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집논문 이외에도 초기불교의 목적론적 연기 방식, 불교 찬가로서 본생담, 굉지 정각의 시로 살펴본 조동선, 초월종교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관음보살 연구 등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IJBTC〉는 국내 유일 영문 불교학 전문학술지로,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캐나다 · 노르웨이 · 영국 · 덴마크 · 몽골 등 9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며 연2회(6월, 12월) 발간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Gm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 6 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이상근의
聖寶流轉

② 목포 유달산 홍법대사상

유달산에 日고승상 있는 까닭은

개항과 함께 수탈 현장이 된 목포

목포는 항구다. 하지만 개항(開港), 항구가 열린 건 그리 오래 전은 아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필두로 부산, 인천, 원산이 차례로 열렸고 1897년 10월 목포에 항구가 열렸다. 같은 해에 마산도 개항을 했다. 지금부터 100년 하고 20년 남짓이다.

고종은 목포 개항을 통해 '관세 수입을 늘려 정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 고 했다.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영사관을 설치할 계획도 세웠다. 그렇게 관세 수입을 늘려 나라살림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 개항을 절실히 원했던 건 일본이었다. 당시 목포는 소위 삼백(三白)항구로 불렸다. 개항이 되자 쌀, 면화, 소금이 목포항을 통해 일본으로 넘어갔다. 개항 당시만 해도 '공식적' 으로 나라가 넘어간 것은 아니었지만 을미사변(1895년) 이후 2년 뒤였다. 뭘 어쩌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일본의 배들만 이 항구로 몰려든 것은 아니었다. 목포 조계지(외국인 거주 지역) 기록에 의하면 미국인, 영국인, 러시아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거개는 일본인이었다. 애초 계획했던 영사관도 일본의 것만 섰다.

여하튼 작은 어촌 목포는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개항 당시 목포 인구는 불과 2800명이었다. 항이 본격적으로 가동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 부산항의 부두노동자들이 조금 더 높은 임금과 대우를 위해 목포로 향했다. 목포의 인구는 1916년에 약 8천명, 1929년에 3만 명, 1932년에 5만 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인구가 늘어난 건 당연히 물동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탈이 심해졌다는 얘기다. 1911년 일본으로 실려 간 쌀은 약 10만 석이었으나 식민 지배의 골이 깊어지자 실려 가는 쌀의 양도 늘어났다. 1929년에는 90만 석으로 증가한다. 9배나 늘었다.

목포에는 늘 인구의 10% 이상이 일본인이었다. 개항 당시 목포 인구 2천8백 명 중 200명 남짓이 일본인이었다. 1920년대 말이 되면 그 숫자는 5,000명 이상으로 불어난다. 전체 인구 중에 약 2할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인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는 만호동 주변에 터를 잡았다. 지금 만호동 주변을 거닐다 보면 쇠락한 건물과 간판이 쓸쓸하지만 네모반듯하고 널찍한 도로에 걷는 일이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계획된 구역이었고 편의시설도 모여 있었다.

반면 거개가 부두노동자들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쌍교리 근처 공동묘지 부지는 그렇지 못했다. 1925년 한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모든 시설이 조선인 사는 곳과 일본인 사는 곳을 갈라서 너무 편벽되어" 있었다. "조금만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고, 음료수로 말하더라고 수통이 적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십여 명의 사람이 물을 길으려고 둘러서게 되며", 일본인 화장터를 이곳 바로 옆에 두어 매일 송장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된 1903년 목포 부두노동자들의 동맹파업에는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종교의 각축장이 된 목포

항구가 열리고 사람들이 늘자 종교도 같이 들어왔다. '종교' 라고 했다. 불교가 아니다. 사실상 한반도 내 최초의 종교 각축장이라고 할 만큼 일본 불교, 개신교, 가톨릭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여기에 조선의 불교, 천도교, 시천교 등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1897년 개항한 목포… 변화 급격
개신교, 日불교 등 포교활동 전개
유달산 정상 홍법대사마애상 조성
88영장 만들어 시코쿠 순례 재현도

1995년 철거 시도 있었으나 불발돼
잔재와 흔적 사이 무엇을 봐야 하나

호남 최초로 개신교 교회가 들어선 곳도 바로 목포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당시 전라도에서 가장 번화했다는 나주에서 씨를 뿌리려 했지만 철저히 실패한다. 그러다 목포가 항구를 열고 급성장할 기세를 보이자 1897년 목포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선교에 들어갔다. 목포에 외국인 조계지가 생기고 거기에 몇몇 미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도 한몫 했을 것이다. 1910년에는 석조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양동 교회다. 예의 초기 기독교가 그렇듯 의료와 교육 사업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들의 선교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싶다. 목포의 '독립운동가' 목록에는 두 명 중 한 명꼴로 '기독교인' 이라는 이름이 선명하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정명여고의 교사와 학생 이름도 많이 보이는데, 역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다.

전라남도 최초의 성당도 이곳 목포에 들어섰다. 알베르도 드애 신부가 1898년 목포에 정착하면서 가톨릭의 선교가 시작됐다. 목포가 개항되고 2년 후다.

1898년에는 일본 불교의 진종 대곡파 동본원사가 들어온다. 이후 1910년대가 되면 정토종, 진종 서본원파, 일련종, 조동종, 진언종제호파 등 당시 일본의 주요 종파는 이미 목포에 자리를 잡았다.



목포 유달산 홍법대사 마애상. 역사상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 한 명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유달산. 왼쪽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 부동명상이, 오른쪽 아래 노란 동그라미에 홍법대사상이 있다.

신자가 대략 60~370호 정도 되었다고 하니 목포에 머물던 일본인들의 거개는 앞에 나온 일본의 불교 종파 중 하나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다.

민족 종교인 천도교 그리고 친일의 성향이 강했던 시천교도 목포에 신도가 있었다.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니었다. 한창 때 신도수가 천도교는 175명, 시천교는 270명이라는 조사가 있다. 1927년에 두 종교는 일본에 의해 해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나 가톨릭은 '한국인' 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 진력했고 바다를 넘어 들어온 일본의 불교는 목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목포에 조선인이 세운 사찰은 달성사, 영명사 등 네 곳뿐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목포의 불교세는 아주 취약하다. 그나마 일본불교인 한국SGI 등이 조금 활발한 활동을 할 뿐 전통사찰로는 달성사(조계종) 정도가 유일하고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정광 정혜원 등 한두 곳이 큰스님들의 자취와 함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유달산의 홍법대사와 부동명왕

유달산은 해발 228m로 그리 높지 않다. 여기에도 일제강점기, 그리고 일본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다. 흔적이라고 했다. '잔재' 라고 치부하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라는 홍법대사(774~835)상과 그가 몸에 지니며 항상 공양하던 부동명왕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홍법대사의 인기는 우리나라로 보면 원효대사나 서산대사급이다. 일본 검색사이트에서 '불교' 를 검색하면 공해(空海)라는 단어를 줄줄이 이어진다. 쿠카이라고 발음하는데 이분이 바로 홍법대사다.

1984년에 중국과 일본이 공동제작하고 〈패왕별희〉를 만들었던 첸 카이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가 있는데 바로 〈쿠카이(空海)〉다. 이 영화는 2018년 재제작되기도 했다. 아예 〈쿠카이(空海)〉라는 뮤지컬은 일본에서 일 년 내내 간판을 달고 있을 정도다.

이분이 우리 땅 목포, 유달산에 마애상으로 남아 있다. 마애상을 새긴 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항구가 열리고 일본인들이 몰려오고 또 일본불교가 따라 들어오면서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단순히 홍법대사와 부동명왕 마애상만 안치한 것이 아니다. 더 큰 그림이 있다.

일본에서는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길 1,400km를 걸어서 돌아보는 것을 오헨로(お遍路)라고 한다.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길은 홍법대사가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수행하던 역사적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길이다. 출가자나 재가자 구분이 없다. 이 길을 순례하는 걸 큰 수행 그리고 행복으로 생각한다. 유달산에도 홍법대사와 부동명왕뿐 아니라 88개의 영장(靈場, 신성한 터)을 만들고 불상을 안치했다.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길을 유달산에 재연한 것이다. 지금도 유달산 곳곳에는 영장에 안치했던 불상을 놓았던 자리가 남아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안치되었던 불상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하나둘 사라졌다. 몇몇은 박물관 또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바위에 새겨졌던 홍법대사상과 부동명왕은 어쩌지 못했다. 1995년 한 차례 이 마애상들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해는 5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복궁 앞 조선총독부 건물이 폭파 해체된 해였다.

목포 사람들 말에 따르면 관에서 마애상을 철거하기 위해 인부들을 데리고 유달산 정상까지 올랐다. 하지만 "철거를 하면 급살 등 화를 입을 것 같다"고 인부들이 손사래를 치자 들고 올라갔던 장비를 들고 그대로 내려왔다고 한다. 이후 추가적인 철거 시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잔재' 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주장했고 '흔적' 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재 전문가들 그리고 또 한편의 시민단체들은 보존을 주장했다.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니 현재는 '방치' 수준이다. 얼마 전까지도 무속인들이 홍법대사상 앞에서 굿판을 벌였고 마애상에 '색칠' 을 하기도 했다. 이것도 그냥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목포에는 민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다. 유달산 정상인 일등 바위는 사람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율동(律動) 바위라고 부른다. 그 밑에 이등바위는 심판을 받은 영혼이 대기하는 곳이다. 극락세계에 가게 된 사람들은 일등바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고하도에서 용선을 타고 간다. 고하도 앞부분은 용머리 모양이 선명하다.

식민지 시절의 아픈 과거의 장면을 계속 상상하게 돼 유감이지만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을 이야기했던 홍법대사가 이곳에 있는 게 우연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목포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 다. 舊 일본 영사관, 舊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인 조계지를 걸으며 역사를 회상하는 코스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딱 그런 차원에서 만큼이라도 봐주면 더 이상의 시비는 불필요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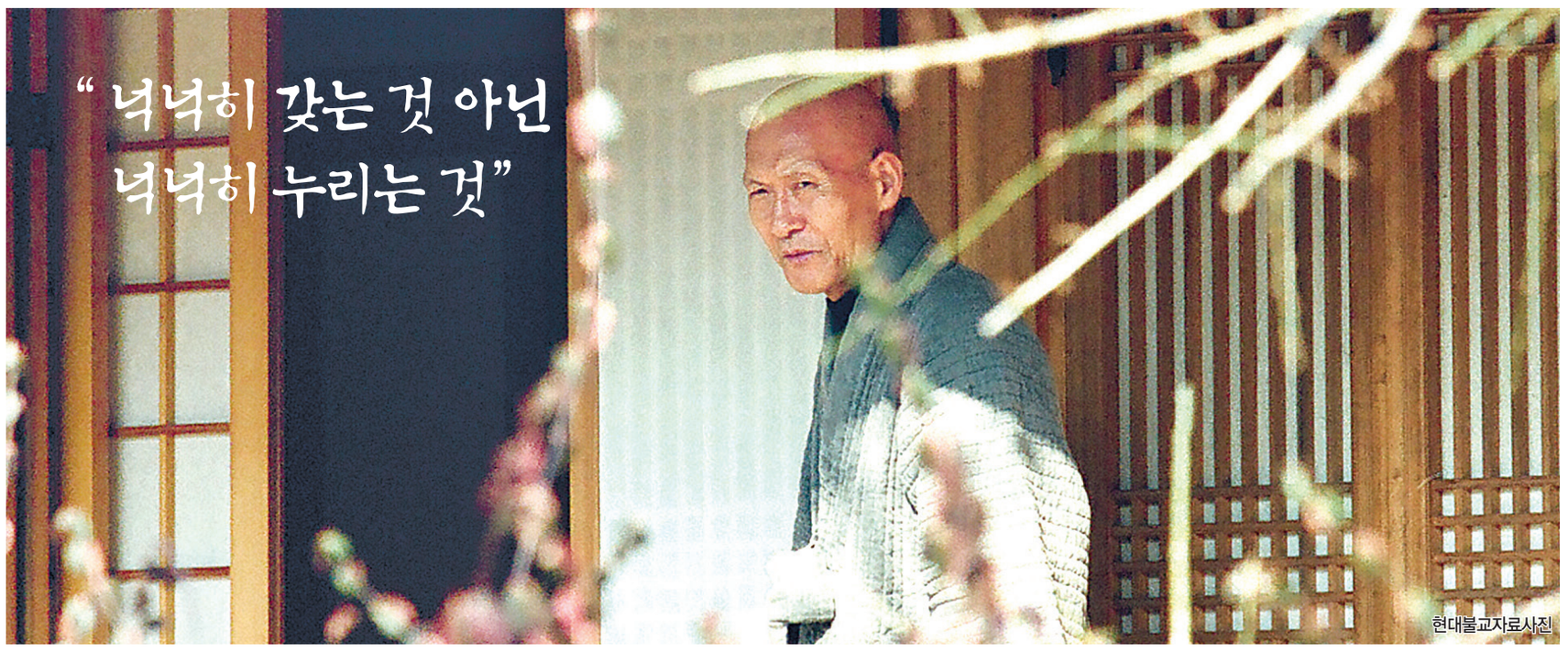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무소유는 살림이다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② 무소유의 참뜻



현대불교자료사진

지난번에는 ‘무소유’를 간추린 ‘소유한다는 것은’을 보며 이야기 나눴다. 이번에는 무소유를 넓고 깊이 새겨 품으려는 마음으로 〈무소유〉를 펼친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 적에서 사라져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가지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인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스승은 이 말씀에 이어 아끼던 난초를 햇볕에 놔두고 나들이했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서 허둥지둥 돌아와 축 늘어진 난에 샘물을 길어다 주어 살렸다고 말씀한다. 또 안거를 마치고도 나그넷길(만행)을 떠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난을 보살펴야 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겠다고 다지며 벗에게 난을 안겨 보냈다는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을 나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제 몫을 더 많이 챙기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사람마저 가지려 들다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롭히거나 죽이고 마는 소유사, 산업사회 이후 소유역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비역사다. 우리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부추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쓰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우리는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넘어서서 물건 아까운 줄 모른다데 있다. 필기구를 비롯해 웬만한 물건들은 다 일회용이다.

요즘 사람들 머리에는 물건을 거듭 쓴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제정신도 갖지 못하고 헤맨다는 스승 뜻이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덜 쓰고 덜 버리기’에 고스란하다.

“우리 선인들은 밥알 하나 버리지 않고 끔찍이 여기며 음덕을 쌓았는데, 그 후손인 우리는 과소비로 음덕은 그만두고 복 감할 짓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지나친 소비와 포식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흔히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한낱 물건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다. 소비자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하는 말인가. 사람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니, 소비자가 어찌 왕일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떤 스님이 글을 즐겨 쓰는 스승에게 끝이 날카로운 만년필을 드렸다. 스승은 원고지에 닿을 때 사각거림이 좋아 한껏 누렸다. 그러다가 어느 해 유럽 여행길 만년필 가게에서 똑같은 만년필을 만난다. 반가운 마음에 하나를 더 샀다. 두 개를 가지고 나니 그만, 하나였을 때 가졌던 살뜰함이 사라지고 말았다. ‘아차!’ 싶은 스승은 새로 산 만년필을 얼른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랬더니 사라졌던 소중함이 되살아났다고 했다. 말씀을 가볍게 마치고 마셨으나 이 말씀 안에는 마구 쓰레기를 만드는 소비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을 쓰지 않을 도리는 없다. 물건을 쓰면서도 소비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이 무엇이든 쓰고 버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나와 함께 삶을 가꾸어가는 식구라고 여겨야 한다. 몸이 아플 때 치료하며 살아가듯이 세간살이를 비롯한 연장 따위가 망가지면 고쳐가며 거듭 살려 써야 한다는 말이다. 이밖에 깊은 뜻이 하나 더 있는데 한 자루가 글을 쓰면서 제구실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한 자루는 쓸모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둘 다 제구실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소복하다. 남는 만년필을 다른 분에게 드렸다는 것은 곧 그 만년필에 숨을 불어 넣어 살렸다는 뜻이다. 곁에서 나와 더불어 내 살림에 힘을 보태 주고 있는 이라면 그것이 연장이든 사람이든 오래도록 가까이해야 참답다는 말씀이다. 삶이 죽음에 맞서는 말이듯이 살림은 죽임에 맞선 말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거듭 돌려써야지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돈을 쌓아두는 일은 돈이 돈 노릇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죽이는 일이다. 발이 묶여 제구실하지 못하는 돈들이 엉뚱한 데 힘을 쓰면서 생겨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고 있다. 투기자금이 되어 떠돌아다니며 갓물주를 만들고 갑과 을을 갈라 세워 여리고 서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물건 대한 인식 전환 필요
마음 나누기가 진짜 행복

어떤 것이든 쓰기 시작하면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거침없이 값이 내려가는 데 오직 돈만은 은행에 묵혀놔도 보관료는커녕 도리어 이자가 붙고, 주식을 사는 사람만이 기업 임자란다. 어째서 그런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거듭 물어야 한다. 불교는 마땅하다고 여겨오는 모든 것에 물음을 던지는 종교다.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흔히 돈 없이는 사람 구실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참으로 그럴까.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바꿔쓰는 수단일 뿐이다. 오래도록 머슴을 부리다 보면 머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 듯이, 교환가치밖에 없는 돈에 매이다 보니 돈 없이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뿐이다.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부처님이 복을 지으려면 이웃과 나눠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서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보시다시피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어리밖에 없어 사람 구실 하기 어렵다고 맞받는다. 부처님은 가진 것이 몸뿐 일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일곱 가지나 있다며 빙그레 웃으신다.

첫째, 눈길 나눔- 따뜻한 눈길을 나누고 좋은 점 보기. 둘째, 낯빛 나눔- 웃음을 머금으며 부드러운 낯빛 나누기. 셋째, 말씨 나눔- 힘 돋우는 말과 사랑 어린 말씀 나누기. 넷째, 몸짓 나눔-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일손 거들기. 다섯째, 맘씨 나눔- 마음을 쏟아 이웃을 정성껏 맞이하기. 여섯째, 자리 나눔- 지친 이에게 앉을 자리 내어주기. 일곱째, 살펴 나눔- 말하지 않아도 이웃 속내 헤아려 보듬어 쉼터가 없는 이에게는 다리 뻗고 쉬도록 해주거나 한뎃잠 자지 않도록 옆자리 내어주기가 일곱 가지 보시다. 마음만 나눠도 넉넉하다는 이야기다. 마음 나누기는 거듭해도 마르지 않는다. 좋은 마음은 내어주면 줄수록 더욱 솟는다. ‘없이’ 샘솟아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텅 빈 충만’이다.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쓰거나 나눌 수 있을 뿐 무엇 하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건물을 사서 세를 놓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물을 살리는 사람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다. 건물 처지에서 봤을 때 내 품에 사는 이와 내 임자라고 하지만 내 품에서 벗어나 있는 이와 누가 더 가까울까. 우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만 가질 수 없다. 써야 할 때 쓸 수 있을 뿐이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닐진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윤구병 선생은 무소유는 공동소유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눔과 섬김 바탕에 무소유가 있다고 말씀했다. 쓸 수 있을 뿐 가질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줘야 한다는 말씀이다.

남에게 내어줄 수 없을 만큼 아까운 것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지키는 데 힘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스승은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한다.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누릴 수 있다’란 말씀이다. 스승은 “가진 것을 버리고 스스로 얽매임에서 벗어나 한껏 누려라. 사람이 참으로 바라는 것은 넉넉하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거듭 흔드셨다.

해와 달, 바람과 공기, 강과 바다, 산과 들 따위 자연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는 없으나 누구나 모시고 받들 수 있다. 애인이나 부부, 어버이와 아이, 벗과 벗 사이도 다를 바 없다. 그저 서로 아낄 수 있을 뿐, 누가 누구 것이 될 수는 없다. 예수님과 부처님을 마음 놓고 우러르며 사랑할 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내 곁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모시는 스승을 우러를 수 있다. 아내든 아이든 아름다운 자연 바람과 빛이든 사랑은 모두 그때 그 모습이 좋아서 그렇게 어울리며 아낄 뿐이다. 어울리며 어깨동무하여 우리를 이룬다. 우리란 너와 나는 둘이지만 서로 떨어질 수 없이 깊이 사랑하는 사이를 가리키는 결 고운 말씀이다.

욕심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스승이 무소유에 가려 담은 참뜻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웃과 어울려 누리려는 데 있다. 너나들이 어울려 누리는 사이가 바로 우리 사이요 우리가 어우렁더우렁 넘실거리는 품이 울타리다. 어깨동무하고 강강술래 하는 사이에 살림이 오롯하다.

무소유는 살림이다! 〈작가〉

『대승기신론』과 『해동소』의 정수를 온전히 풀어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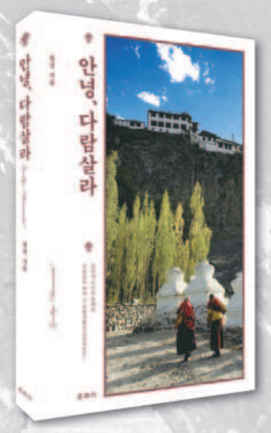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3

대승불교의 교과서 『대승기신론』과 그 주석서로 인도와 중국을 뒤흔든 원효의 『소별기』!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각권 400여쪽/각권 20,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대부 선종사에도 많은 역할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② 중국사대부와 선종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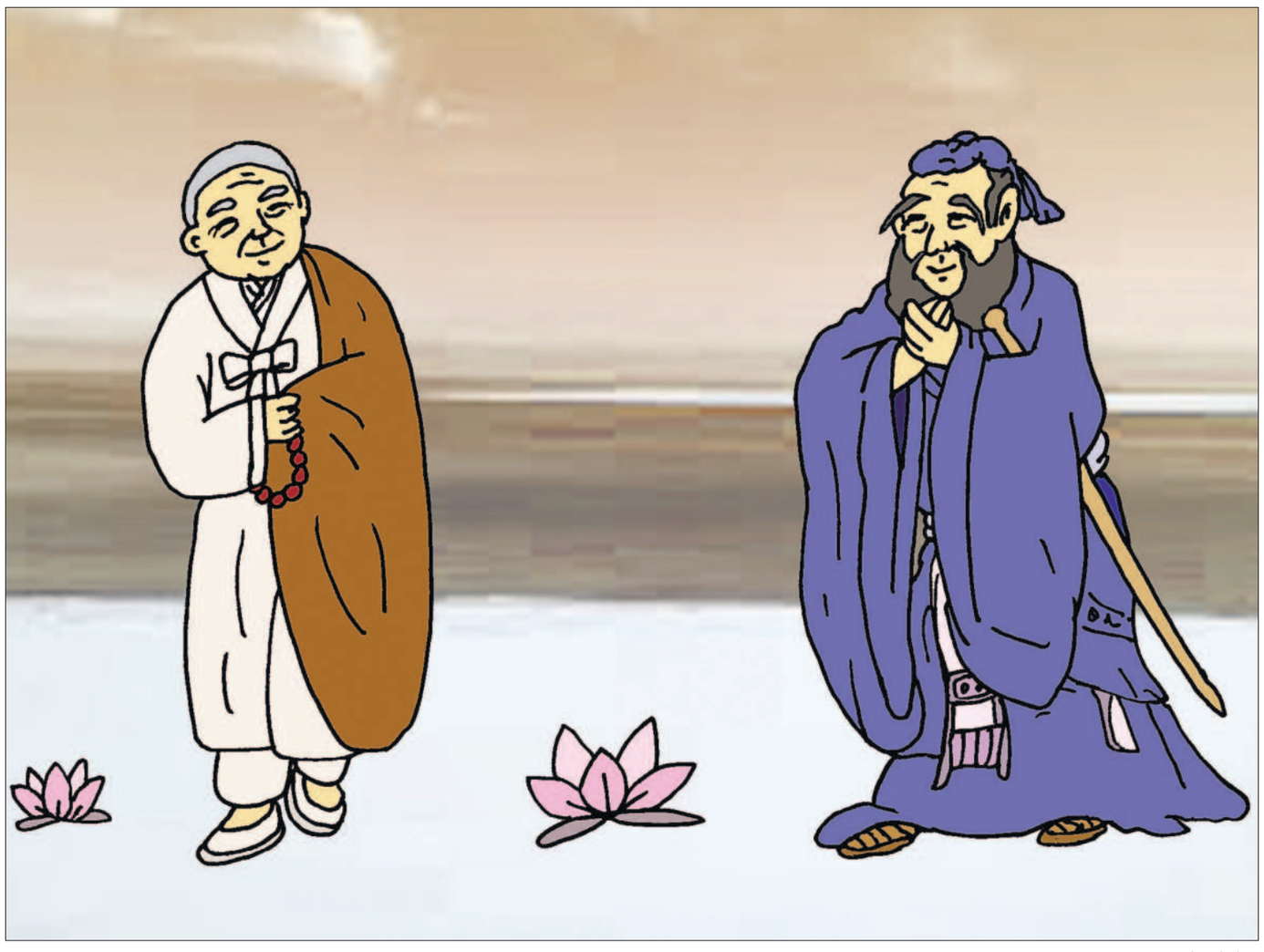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중국의 사대부들은 정치 · 경제 · 역사 · 문화 · 예술 · 사상 등 각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 · 경제의 주체자로, 때로는 역사를 선도하는 선구자로, 때로는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하는 선도자로, 또 때로는 상층부와 하층민을 잇을 중추로 각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과 본분을 충실히 지켜왔다. 때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역사의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들은 중국 역사에서 그들의 위치에 걸맞은 행동과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대부들과 불교의 만남은 그야말로 중국역사를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중국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며, 그들과 선사들의 만남은 또 다른 세계를 눈뜨게 해 주었다.

중국 사대부의 의미에 대해서 시대별로 짚어보고, 그들의 역할 내지 사회적 지위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울러 그들과 불교 및 선종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국역사에서 사대부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덕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다. 과거제도를 통해서 선발되는 사람들로서 국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사회의 상층문화와 예술세계를 창조하고 전승했던 사람들이다. 사인(士人)이라고 하면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지만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으로 지식분자 혹은 독서인(讀書人)이라고도 한다. 중국 고대문헌인 〈주예(周禮)〉에서 사대부에 대한 소개를 보면 "앉아서 도를 논하는 것을 왕공이라 이르고, 지어서 행하는 것을 사대부라고 이른다"고 했으며, 역시 〈주예〉에서 말하기를 "사사(師帥)는 모두 중대부요, 여사(旅帥)는 모두 하대부요, 졸장(卒長)은 모두 상사요, 양사마(兩司馬)는 모두 중사요, 그러나 군장(軍將) 모두를 통솔하는 이는 사대부이다."고 했다.

중국 문헌이 밝히고 있는 사대부의 속성을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주(周)나라 초에 사(士)는 노예제도에서 일종의 계급이 있는 신분이었다. 즉 경대부(卿大夫)의 아래 서민(庶民)의 위(上)였다. 대다수가 경대부는 적자가 아니었으며, 서주(西周)의 가장 낮은 계급의 귀족이었다. 춘추전국시대 군웅이 활개를 치던 시대에 각 제후국에 돈과 명예와 부가 있는 제후귀족들은 '양사(養士)'를 했던 것으로 유명하며, 그 가운데서 춘성군(春信君), 맹상군(孟嘗君) 등이 가장 유명하다. '양사'란 나름대로 한 가지씩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이들을 말한다. 그 당시는 귀족들이 양사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때로는 양사들이 수천 명이 되기도 했다. 각 제후 간에 서로 비교하면서 많은 재주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었다. 그 예로 모수자천(毛遂自薦)이라는 고사도 생겨났으며, 심지어 이들은 자칭 재주 있다고 제후귀족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들을 지칭해서 사족(士族)이라고 한다.

〈논어〉에서 공자가 제시한 사(士)에 대한 표준이론을 보면 "자공(子貢)이 묻기를 '무엇을 일러 사라고 합니까?' 라고 하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어디에서든지 군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을 사라고 한다' "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사(士)와 '군자(君子)'는 때로는 기본적으로 중첩의 의미가 있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워 보면 '사(士)' 덕행과 수행방면에서 군자보다 비교적 떨어진다. 사(士)는 비교적 의지 정의감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사(士)'를 실천하는 정신은 '협사(俠士)'라는 표현이 더욱 마땅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진시황 영정(嬴政)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자객 형가(荊軻)를 들 수가 있는데, 그가 진시황제를 죽이려고 출발하기 전에 비분강개해서 읊은 시로 "바람소리 쌩쌩하고 역수의 물은 차갑기만 한데, 장사(壯士)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는 군왕의 사명을 받들고자 자기의 생명은 초개와 같이 여기고, 호방한 기개와 고결한 성품을 겸비한 일종의 모범적인 정신을 소유한자로서, 공자가 앞서 제시했던 '사(士)'의 면모와 일치한다. '사(士)'의 정신을 실천한 또 다른 형태는 은사(隱士)들로서, 이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좌산관호문(坐山觀虎門)을 했다. 때문에 백성들은 은사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존경과 신비의 눈으로 그들을 앙모하고 바라보았다.

'사대부' 개념 · 명칭 송대 완성
가장 걸출한 지식층 집단 성장
선승과 만남 문화발전 시너지
어록 · 공안 등은 또 다른 문학

한대의 유교는 지식분자들에게 입세(入世)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관하고 군왕과 나라에 진충보국할 것을 강려했다. 한대에 관원을 선발하는 제도는 비교적 원만하였다. 중요한 것은 왕공귀족이 추천한 인품이 고명한 인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효(孝)가 출중하든가 무엇인가 뛰어난 재주와 식견이 있으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발탁되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유명한 죽림칠현(竹林七賢)이 출현하는데 그 뿌리는 위에서 말한 사(士) 문화 은사문화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죽림칠현은 매우 지식이 높은 지식분자들로 학문과 문화 예술에 조예가 깊었으며 품격이 고상한 도덕적 수양과 절조와 지개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으로 어디에도 구속 받지 않고 자유분방하였고, 때로는 방종한 행위로서 예법을 지키지 않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술에 절어서 죽은 이도 있다. 그들은 부패한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신적 기개는 공자가 말한 사(士)를 조금 더 보충한 것으로, 그들은 조정이 부패하면 그들과 함께 섞이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고상한 기질을 여과 없이 나타냈다. 반면에 이들은 이러한 울분을 삭이기 위해서 문학예술에 심취하기도 했다. 이것은 사(士)의 절조이자 은(隱)이었다. 이러한 정신의 일부분은 노장철학의 자연무위에 모태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비록 수당시기에 과거제도가 생겼지만 진정으로 관원이 되는 유일한 경로는 송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송대 정주이학(程朱理學)이 진일보 발전하면서 유학사상도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 했다. 소위 신유학의 시대가 열렸다. 과거제도의 완전함은 관원이 되는 가장 합법적이고도 유일한 경로가 되는 제도였다. "공부를 마친 후에 그 지식을 합당한데 사용하라(學而優則仕)"와 "모든 것은 다 품격이 낮다, 오직 독서만이 바른길을 갈 수 있다"라는 구절은 지식분자들이 신봉하는 격언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정부관원은 반드시 유가경전을 충분히 알고 소화할 때 비로소 문화인이라고 칭했다. 이것은 정치제도가 사대부들을 보장해주는 합법적 정책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대부는 당시 사회의 가장 걸출한 인재인 지식계층의 집단이었다. 이 지식계급집단은 나라의 각종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한편 사대부라는 정확한 개념과 명칭 및 계층은 송대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송대 이후 대다수의 사대부는 "나라를 위해서 진충보국하고 황제의 은해에 보답해야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온힘을 다해야한다."고 하는 숭고한 도덕적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송대의 간화선 창시자 대혜종고도 "보리심이 곧 충성심"이라는 구호를 왜치기도 했다.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다. 동시에 이들은 문화적 소양으로 문학 서예 회화 전서 골동품 수집 등의 방면에 조예가 깊었으며, 전통문화 계승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송대의 사대부 문화중의 전형적인 예로서 문인화(文人畫)를 들 수 있는데, 문인화는 다른 말로 사부화(士夫畫)라고 하기도 한다. 화중에 문인의 정취와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인화의 정식적인 명칭은 원대의 화가 조맹부(趙孟頫)가 제시한 것이다. 특히 송휘종(宋徽宗)은 자신도 예술가였지만 사대부들에게도 회화창작에 몰두하도록 대대적으로 장려를 하기도 했다. 송대 이후 역대 대시인(大詩人), 대화가(大畫家), 대서법사(大書法家)들은 모두 정부의 관원들이었다. 소식(蘇軾), 미비(米芾 · 서예가), 채경(蔡京 · 서예가) 등이었다. 당나라 때 이백(李白)과 같이 모두 정치적 경험이 있는 인물들로서, 이러한 전통은 청말까지 이어져 왔다. 청말 이후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적인 관념이 바뀌면서 사대부도 점점 역사의 명사로 남게 되었다.

선종이 자주 주장하고 사용해온 '교외별전 즉심즉불 직지인심'이라는 독특한 사상적 관점을 한층 더 심화된 이치로 풀어내고, 혹은 철학적 사상적 이치로 표현하면서, 사대부들로부터 더욱더 환영을 받기 시작했다. 사실 선종의 선사들 가운데 본래 문학적 재능을 겸비한 인물들이 즐비했다. 큰 틀에서 보면 어록, 공안 등의 창작은 일종의 또 다른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중국의 사대부들의 영향 내지 선사들이 일정부분 어느 정도의 교양과 소양 및 지식수준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 했을 것이다.

〈동국대 강사〉

제11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 6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범음, 범패 1년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개인지도,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무파사 불교대학원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사진 ……3매
→ 개강일시 : 2020년 3월 7일(토) 오후2시
→ 수 업 : 매주 토요일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주 소 : 대구시 동구 팔공로 73-7
→ 신청문의 :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불교대학원(학장)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2월 10일 (월) ~ 2월 27일 (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조현성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미얀마 예절문화 근원 '三寶'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② 타인 공경하는 '가도' 문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사회문화 중 하나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 심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꼰대'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꼰대는 원래 가정에서 아버지 혹은 학교 선생님을 지칭하던 청소년들의 은어였다. 하지만 이것이 최근 들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꽉 막힌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고방식이 답답한 어른들을 부르는 용어로 이해되고 있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미얀마 사원을 방문해 스님들에게 가도하고 있다.



네덜란드 미얀마 유학생들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게 'Gado(가도)'를 표하는 모습. '가도'는 미얀마에서 스승이나 어른들에게 표하는 존경심이다.

아웅산 수찌에 절 올린 까닭은

한국의 이러한 사회흐름 속에 있다가 미얀마 사회에서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예절문화를 보고 크게 놀랐다. 처음으로 미얀마의 예절문화를 보고 놀란 것은 2013년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이 광주인권상을 받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다.

이때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은 서울의 '웨스틴 조선호텔'에 묵을 예정이었고, 한국지부 NLD 당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호텔인근 도로에서부터 로비까지 줄지어 열렬히 환영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Me Su" 혹은 "Mother Su(어머니 수찌)"를 외치며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메쑤 짠마바세!(수찌 어머니 건강하세요)"라고 말하며 절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에서, 스님에게 절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은 '아, 미얀마 사람들은 부처님과 스님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하는 만큼 존경하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절을 하는 문화가 있구나' 였다. 미얀마의 불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던 나에게 미얀마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였다.

하지만 미얀마가 불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아웅산 수찌를 신격화하는 미얀마 사람들' '아웅산 수찌는 또 다른 독재적 인물' '아웅산 수찌를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미얀마 사람들' 이라고 미얀마의 문화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미얀마의 문화적 현상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미얀마는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나라"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아야 미얀마 사람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스스로 가졌던 이런 생각이 미얀마에서 유학을 하면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미얀마 문화를 직접 체험할 때마다 느낀다. 특히 앞서 언급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게 절을 했던 미얀마 사람들의 행동은 미얀마 문화 중 'Ananto Ananta Ngar par(아난더 아난다 응아 바)' 의 사상에 기초한 'Gado(가도)'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Ananto Ananta Ngar par' 에서 'Ananto Ananta' 는 빨리어, 'Ngar par' 는 미얀마어다.

아웅산 수찌, 인권상 수상차 방한
미얀마 사람들이 줄지어 절 올려
국가고문 숭배한다는 오해 아쉬워
불교문화에서 비롯된 고유의 풍습

한국말로 풀이하면 '끝없고 끝없는 다섯 분' 이다. '다섯 분' 에는 '삼보(三寶, 불 · 법 · 승)' 와 '부모님 · 선생님' 이 포함된다. 즉, '끝없는 공덕과 은혜를 지닌 삼보와 부모님, 선생님의 공덕과 은혜' 를 미얀마에서는 'Ananto Ananta Ngar par' 라고 한다. 또한 'Gado(가도)' 는 '(삼보를 예경하는 마음처럼) 경의를 표현하는 것' 이라는 뜻이다. 미얀마에서 한 개인에게 '삼보(三寶, 불 · 법 · 승)' 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이고 중요하다. 자신의 부모님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 먼 여행길을 떠나기 전 부모님께 '가도' 를 하기 위해 큰절을 3번 올린다. 부모님 다음으로 중요한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미얀마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은 곧 법(法)이다.

선생님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학생들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은 학년이 끝날 때마다 "스승 경배의 날"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에 감사하는 선물과 함께 절을 올리는 행사를 한다. 나중에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직장이 들어가서도 본인의 은사였던 분에게는 시간을 내어 찾아간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현금을 마련하거나 선물을 사서, 시간이 지나서도 옛 가르침에 대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한다.

경지 높은 예절문화에 감동

양곤대학교 박사과정의 유학기간은 총 5년이다. 1년은 수업을 듣고 나머지 4년은 논문을 쓰는 기간이다. 2019년에 1년간의 수업기간이 끝나고 각 수업마다 '가도' 를 하기 위해 5천원 혹은 1만원 정도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선생님들에게 드렸다. 한국에서는 사실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돈을 모아 드리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돈을 선생님에게 드린다는 행위 자체가 어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핏 촌지나 뇌물처럼 여길 수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얀마 친구들은 자신들을 1년 동안 성실하게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게 '돈' 혹은 '선물' 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하는지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는 돈이나 선물이라는 공양물로 대체하여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도' 문화 말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점심시간에 가깝게 끝나는 수업을 맡은 교수님의 식사를 학생들이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었다. 산스크리트 문학 수업이 끝난 후 박사과정 동기 친구들이 분주하게 학생식당으로 뛰어가 교수님의 밥과 반찬들을 사와서 접시 하나하나에 옮긴 후 교수님에게 절을 한 뒤 식사 대접을 하는 모습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긴 하지만 직접 늘 챙겨드리지는 않으니 말이다.

이러한 문화가 가정과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의 직장과 일반적인 사회 관계 그리고 정치에서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 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학교 교사를 뜻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직장이라면 자신의 부서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 그리고 회사의 회장에게는 자신의 선생님과 같은 존경심을 표현한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가 한 분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미얀마 직원들이 단체로 자신의 방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 크게 놀랐지만 그 뜻을 알고 무척 감동받았다고.

사회는 어느 한 분야 또는 한 계층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어른과 젊은이들이 늘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Ananto Ananta Ngar par(아난더 아난다 응아 바)' 의 사상에 기초한 'Gado(가도)' 문화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어른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존경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늘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당연하다는 듯 젊은이들의 인사를 받지도 않는다. 미얀마 어른들은 젊은이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을 막 대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만큼 아랫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앞서 미얀마 사람들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게 절을 한 것은 국가고문을 맹신해서가 아니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Me Su(어머니 수찌)" 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위해 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미얀마 국민들의 어머니이자 어머니와 같은 공덕과 은혜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Me Su(어머니 수찌)"라고 부르는 것이다. 만약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에게 국민적인 신뢰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미얀마 국민들은 올바른 견해를 통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불교적인 관점에서 미얀마의 사회 · 문화적인 현상을 바라보아야 미얀마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양곤대 박사과정〉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락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허공에는 못질을 못한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④ 임제록의 명장면 쌍용쟁옥(雙龍爭玉)

부주(府主) 왕상시(王常侍)가 여러 관료들과 더불어 스님께 법좌에 오르시기를 청했다. 스님께서 법좌에 올라가서 말했다.

"산승이 오늘 상시가 굳이 청하니 어찌 강종(綱宗)을 숨기겠는가? 자, 전쟁에 나갈만한 장수가 곧바로 진을 치고 깃발을 꽂을 자가 있는가? 대중 앞에 증거를 보이시오."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임제가 할(喝)을 했다.

스님이 절을 했다.

임제가 말하기를

"이 스님은 말을 나눌만 하구나."

누가 물었다.

"스님은 누구의 노래를 부르며, 종풍은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내가 황벽의 처소에서 세 번 질문을 했다가 세 번 두들겨 맞았느니라."

물은 스님이 무어라고 말을 하려 하자 임제가 할을 하고 때리면서 말했다.

"허공에 못질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좌주가 물었다.

"삼승십이분교(三乘十二分敎)가 어찌 불성(佛性)을 밝힌 것이 아닙니까?"

임제가 말했다.

"몹쓸 풀은 호미질 할 필요가 없어."

좌주가 말했다.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부처가 어디 있나?"

좌주가 말을 못하자 임제가 말했다.

"왕상시가 있는 데서 늙은이를 망신주려고 그러는가?"

다시 말했다.

"어서 물러가. 속히 물러가라. 다른 사람 질문하는데 방해되겠어."

다시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일대사(一大事)를 위한 자리인데 다시 물어볼 사람 없는가? 빨리 물으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입을 열어봐야 일대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소. 왜 그런가? 보지 못했는가? 석가세존이 말씀하셨어. 법은 문자를 떠나 있고 인(因)에 속하지도 않고 연(緣)에 있지도 않다고 했어.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오. 상시와 관원들이 자기네 불성을 잊고 방황할까 두렵소이다. 그만하고 물러나겠소. 할을 한 번 하고 신근(信根) 모자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해 봐야 소용없소이다. 오래 서 있느라 수고하셨소."

임제가 하루는 하부(河府)에 갔더니 왕상시가 법을 청했다.

그때 마곡(麻谷)이 나와 물었다.

"대비의 천개의 손과 눈에 어느 것이 바른 눈인가?"

임제가 말했다.

"대비의 천 개의 손과 눈에 어느 것이 바른 눈인가?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마곡이 임제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마곡이 앉았다.

임제가 앞으로 가까이 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마곡이 머뭇거리자 임제가 또 마곡을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

마곡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임제도 자리에서 내려왔다.

〈임제록〉의 이 대목을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한다. 임제와 마곡이 나눈 대화를 두 마리 용이 여의주(如意珠)를 다투었다고 일본의 야마다 무몬(山田無文)이 말했다. 쌍용쟁옥(雙龍爭玉)이라 했는데, 임제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말이요, 임제를 모르면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장면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모름지기 선의 참뜻은 말이나 행동 뒤에 숨어 있다. 결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조계종 고시원장〉

대일여래, 극락교주 아미타불



세상 속 경전읽기

④ 삼신일불(三身一佛) 아미타불

삼신(三身)이란 붓다의 삼신을 말하니, 법(法)·보(報)·응(應) 삼신은 세친(世親)의 〈법화경〉 주역서인 〈법화론(法華論)〉에서 취한 천태종의 삼신이다.

여기에서 법신은 본래 있는 이체(理體)이고, 보신은 수행공덕의 과보로써 드러난 붓다의 지혜(실지·實智)이다. 보신을 둘로 나누면, 붓다 스스로 법락(法樂)을 누리는 자수용(自受用)보신과 초지 이상의 보살이 법락을 누리도록 하는 타(他)수용보신이 있다.

응신이란 응화신(應化身)이라고도 한다. 이지(理智)가 둘이 아닌, 곧 법보신(法報身)의 묘체(妙體)로부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나투는 몸이다. 이 응신을 둘로 나누면, 승(勝)응신과 열(劣)응신이다. 보살 초지 이상에 나투는 승응신이 위의 보신 중 타수용보신과 동일하다. 열응신은 성문·연각·범부를 위해 나툰다.

법신불이 곧 비로자나불이니 일체 모든 곳에 두루하다. 보신불은 곧 노사나불이니 정만(淨滿), 곧 청정하고 원만하다. 응화신불을 석가모니불이라 하니, 그 뜻의 번역은 도옥초(度沃焦)이다. 도옥초의 '옥초'란 연옥 위 바다 속에 있는 만류(萬流)를 흡입하는 바위산으로 곧 욕망에 불타는 중생을 의미하고, '도(度)'는 이러한 욕망에 불타는 중생을 제도하여 건네주는 것으로, 이 '도'와 '옥초'를 합성한 도옥초는 중생을 제도하는 붓다를 말한다.

친광(親光)이 짓고 현장이 번역한 〈불지론(佛地論)〉과 세친이 지은 〈유식론(唯識論)〉 등 법상종에서는 자성(自性)·수용(受用)·변화(變化)의 삼신을 말했고, 이는 각각 위의 법(法)·보(報)·응(應) 삼신과 유사하다.

법(法)·응(應)·화(化) 삼신은 〈최승왕경(最勝王經)〉에 나오는 것으로, 자성신과 자수용신을 합한 것이 법신, 응화신을 세분하여 타수용신을 응신이라 하고, 변화신을 화신이라 한다.

법(法)·보(報)·화(化) 삼신은 대승과 소승에 그 명칭이 통용되며, 다만 소승의 법신은 계(戒)·정(定)·혜(慧)·해탈(解脫)·해탈지견(解脫知見) 오품(五品)의 공덕을 법신이라 하고, 왕궁에서 태어난 붓다의 32상(相) 80수형호(隨形好)를 보신이라 하고, 원숭이, 사슴 등으로 화현(化現)함을 화신이라 한다.

진언종은 지수화풍공식(地水火風空識)의 6대(大)를 법신이라 하고, 이 6대는 현상과 사물이니만큼 법신에 현상과 사물을 갖추고 인격이 있으므로, 현교(顯敎)의 보화불(報化佛)과 같다. 그러나 이 6대는 서로 걸림이 없으므로 차별하기 어렵고, 식(識)을 제외한 전(前)5대를 자성신인 이법신(理法身) 곧 태장계의 대일(大日)여래라 하고, 제6의 식(識)대를 자수용신인 지법신(智法身) 곧 금강계의 대일여래라 한다.

기독교에서는 CE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부(聖父)·성령(聖靈)·성자(聖子)의 삼위일체설을 의결 채택하였다. 이는 불교의 삼신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각번(覺鐇)이 지은 〈오륜구자명비석(五輪九字明秘釋)〉에서는, 밀교의 입장에서 아미타불관과 정토관을 밝히며 아미타여래와 대일여래가 동체라고 하였고, 극락세계와 밀엄국토가 같은 곳이라고 하였다. 아래 그 대목을 인용한다.

"밀교 경전 중에 대일여래는 곧 극락교주 아미타불이다. 마땅히 알라. 시방정토는 모두 대일여래 법신불의 화토(化土)이며, 일체 여래는 그 모두가 대일여래 법신불로서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은 동체(同體)의 다른 이름이며, 극락세계나 밀엄(密嚴)국토 또한 이름은 달라도 한 곳이다."

금타 대화상과 청화 스님께서 주창한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을 통한 염불선(念佛禪)' 수행에서, 법보화(法報化) 삼신은 '우주의 총대명사인 아미타불'의 세 가지 측면이다. 따라서 삼신일불(三身一佛)인 아미타불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⑩ 이해의 길 30

편견이 지혜로 전환돼야

〈識〉 〈智〉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저 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날 이러한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가 심리학과 철학, 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오감(五感)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같은 대상인데도 개인의 특성이나 경험, 주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도 뇌에 축적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치과의사는 치아를 먼저 보고, 미용사는 머리 모양에 관심을 갖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뇌에 쌓인 정보를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사물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왜곡 등이 쉽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거실에서 강아지가 똥을 누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자리를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더럽다고 여길 것이다. 내 마음에 변을 보는 강아지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쉽게 앉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식(唯識)'은 마음에 쌓인 정보를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들의 생생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오직(唯) 마음(識)의 작용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一切唯心造)'는 말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유식은 대승불교 중기에 유행한 사상이다. 주요 경전으로 유식의 핵심을 30개의 게송으로 정리한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唯識三十頌)〉과 10명의 논사들이 이 책에 주석을 첨부한 〈성유식론(成唯識論)〉 등이 있다. 불성과 여래장이 마음을 청정심(淸淨心)으로 해석했다면, 유식에서는 이를 번뇌, 망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유식은 온갖 번뇌, 망상과 편견, 착각 등을 일으키는 중생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인이 분명해야 치유도 쉬운 법이다.

유식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은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감각기관 즉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을 전(前)5식이라고 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의식(意識)이 제6식이다. 그리고 이기심의 원천인 제7 말나식(末那識)과 모든 행위의 저장 창고인 제8 아뢰야식(阿賴耶識)이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식적인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에 쌓이고 그곳에 저장된 에너지가 다음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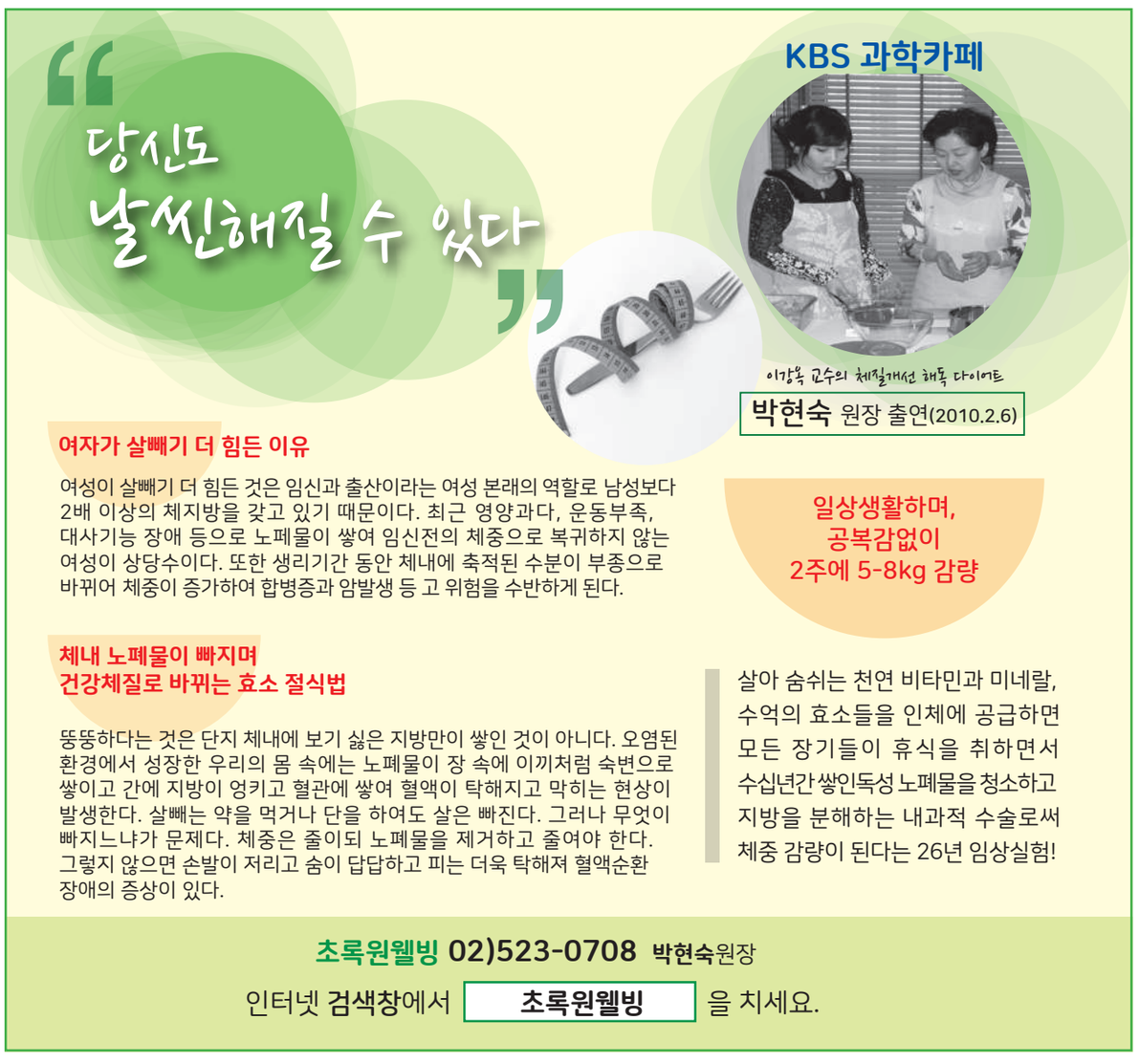
유식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현재의 행동이 종자에 쌓이고(現行薰種子) 종자가 현재의 행동을 낳는다(種子生現行)"고 설명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종자, 즉 아뢰야식에 저장되었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의 행위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전날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만취한 사람이 집을 잘 찾아오는 것도 종자에 저장된 에너지가 습관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수없이 집에 왔던 행위가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현실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종자라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뱀은 징그럽고 돼지는 욕심 많은 동물이라는 생각 역시 종자에 저장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그저 그렇게 생긴 것뿐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이 심하게 왜곡된 것이다. 유식에서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어야 한다(轉識得智)고 강조한다. 편견(識)이 지혜(智)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색안경을 벗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식에 '곰보도 보조개'라는 말이 있다. 누가 봐도 곰보인데,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보조개로 보인다는 뜻이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보조개마저 곰보로 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과 자비는 이때 나오는 축복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8호 | 13 | 전면광고

속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많음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법답게 행하면 죽어서 곧 천상에 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2168-2800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정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5계를 철저히 지키는(채식, 금주, 금연) 조계종 소속의 독신 포교사로서 생활불교 실천을 위한 불교수련원, 불교요양원 건립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실(대여) 선우를 찾습니다.
(무상보시는 원치않습니다.)
해월산 在禪 합장
010-7572-5358

종단기관지 양도
종단 기관지
(신문·잡지)
양도합니다.
010-5412-8040

지장성모님 예불동참
만불사는 지장보살어머니 신행중심 국내외 지장신앙 불자 다문화가족 한국방문시 숙식무료, 관광쇼핑 다문화가족 친정마트 사업지원 가족불 100만원 / 법당불 50만원 탱화별도 1인1불, 저작권 있습니다.
권佛寺종무실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
특수한 기도비법을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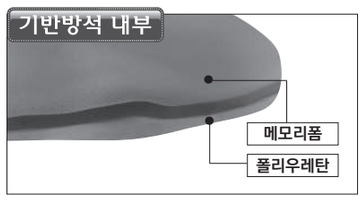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 010-3747-8692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문의 |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78호 | 14 | 전면광고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무량수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 외
◎ 요사 : 60평, 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 안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토굴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도심속 사찰명당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대지 : 262평
- 건물(판넬주택) 50평, 거실, 주방, 방2, 화장실, 조경, 주차시설완비
- 가액 : 9억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절충

010-8339-552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7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밀양 초동. 토지 : 1136평. 관리지역
- 가액 : 1억6천 (은)1억5천

010-9906-3631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연엽산자락
- 대지 : 150평. 전 1,050평
- 건물 : 25평(경량철골구조) 창고 : 6평, 마을끝 자락 위치. 조경완료. 비구니스님최적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518-3958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방문후 결정.

010-3422-323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부곡시장윗시장상가2층 (약35평)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보증금 2천만 월40만
- 시설비 협의후 결정

010-9430-135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오산3길 29 ● 대지 175평, 요사 30평(방3,주방, 거실,다용도실,욕실,에어컨,엠프 등 최적의 시설완비) ● 법당 대웅전 15평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외부화장실(남,여), 창고 5평 ● 수려한 조경과 태양광 설치로 전기세 월 5천원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금 1억포함)

010-8947-6370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문동길 149-88번지(애당리467)
- 법당1개, 요사채2개 밭5천평, 산2만천평
- 가액 : 5억원
- 아래에 봉화댐 조성중

010-5421-762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부산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309번길 16(2층) ● 약 40평(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탱화, 소불) ● 큰방1개, 큰거실겸 주방, 화장실 큼, 옥상 사용가능, 시설 깨끗하고 완벽 ● 보증금 2천만, 월 40만 ● 시설비 1천3백만(절충가)

010-3389-8133

◑ 입종안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가액 : 1억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창말5길 28-6
- 사찰대지300평, 법당22평, 삼존옥불, 소불108불 ● 요사체 약40평, 종무소8평, 산신각2평 ● 약사여래불4평, 용왕당2평, 실내화장실3곳, 야외화장실2곳 ● 태양광, 태양열2조 ● 가액 : 3억 7천5백만원 ● 은행대출 6천만원

010-8982-44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시장 옆
- 건물 2층(약30평)
- 삼존불, 호신불 다수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517-2357

사찰 안내

- 의정부시 가능역 사거리
- 평수 : 25평(방1)4층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 77만(부가세포함)
- 시설비 1천만원(100%완벽 A급)몸만 오시면 됩니다.
- 주차장 완비

010-5497-388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불상으로 꼽힌 미륵반가사유상. 사진은 2015년 한국에 전시된 바 있는 일본 주구사에 소장된 목조미륵반가사유상이다.

日 인기 1위 불상 '미륵반가사유상'

불상조성업체 호세이상사 20~60대 설문조사

박영빈 객원기자

전국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연령별 선호하는 불상 조사
젊은 층은 천부 신장 선호해
반면 중장년은 불보살 인기

일본에서 연령별로 선호하는 불상에 대한 인기조사가 실시돼 화제다. 1월 15일 일본의 '니코니코 뉴스'는 지난해 연말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불상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늘고 있다. 불상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불상이 가진 특성이나 전설 등에 집중해 불상을 찾아 답사하거나 수집하는 등 이른바 '불상붐'이라는 사회현상이 일고 있다.

불상붐의 시작으로 불리는 현상은 2009년 도쿄박물관 특별전, '국보 아수라전'이다. 나라 코후쿠지(興福寺)에 소장된 아수라상을 중심으로 우수한 불상들을 전시된 이 특별전에서, 오직 아수라상을 보기 위해 약 95만 명의 인파가 몰려 화제가 됐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불상에 대한 흥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된 것이다.

불상조성 · 유통사로 유명한 호세이(鵬盛)상사가 일본 전국의 남녀, 20대에서 60대까지 총 1,000명을 대상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6.4%의 인원이 '불상에 흥미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0대와 30대가 특히 높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에서 1구 이상의 불상을 실제 소장하고 있다고 답변한 이들은 전체의 23.1%로 예경의 대상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불상에 흥미가 있다고 답변한 인원들 가운데 각기 선호하는 불상을 묻는 조사에서, 전 연령에 걸쳐 가장 인기가 많은 불상으로는 미륵반가사유상이 꼽혔다. 뛰어난 예술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점과 가장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불상의 이미지라는 점이 인기의 이유로 분석됐다.

또한 2위 부동명왕, 3위 비사문천, 4위 대일여래(비로자나불), 5위 대흑천(大黑天) 순으로 선호 불상이 집계됐다. 반면 가장 인기가 적은 불상은 문수보살이었다. 호세이상사 측은 집계결과에 대해서 "불상은 크게 여래, 보살, 명왕, 천부로 나뉘어 그 격을 달리한다. 그러나 격이 높다고 해서 인기에 비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인기조사에서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불상 1위로는 한국에서 동진보살로 알려진 '위태천(韋馱天)'이 꼽혔다. 또 다른 특징으로 20대가 선호하는 불상은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천부의 신장들로 집계됐다. 반면 30대가 가장 선호하는 불상은 사천왕 중 다문천(多聞天)이라고도 불리는 '비사문천'으로 20대와 비슷하게 천부의 신장들이 인기 높았지만 2위와 3위에 각각 부동명왕과 미륵보살이 집계되어 양상을 달리했다.

한편 종합 1위의 미륵보살은 각각 50대와 60대에서 1위에 집계됐고, 연령이 높을수록 불보살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니코 뉴스는 "연령별로 선호하는 불상이 다른 점이 특색이다. 젊은 층일수록 이미지가 강렬한 불상을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스리랑카 불상… 100년 만에 제자리로

英 케네스 벨 목사 가족 '불아사'에 목조불상 반환

"1919년 HCP 벨에게 갔다가 2019년 그의 손자 케네스 벨에 의해 다시 돌아왔다."

정확히 100년 만에 스리랑카의 국보 1호 '불아사'(Sri Dalada Maligwa, '부처님 치아 사리를 보관한 사찰'을 뜻함)로 다시 돌아온 목조 불상의 비문에 새겨진 문구다. BBC 등 외신은 얼마 전 목조 불상을 반환하기 위해 영국에서 스리랑카로 건너온 케네스 벨(Rev. Kenneth Bell) 목사 가족의 이야기를 전했다.


불아사 불상반환식에서 예를 올리는 대중.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케네스 벨 목사는 스리랑카 칸디(Kandy) 지역에 위치한 불아사에 불상을 반환하기 위해 그의 딸 피오나와 함께 동행했다. 높이 14㎝ 크기의 목조 불상은 1919년 그의 조부인 해리 찰스 퍼비스 벨(Harry Charles Purvis Bell, 1851~1937)이 불아사의 한 스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다.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던 HCP 벨은 1890~1912년 스리랑카(당시 실론, Ceylon)에서 최초의 고고학 위원으로 일하며 '고고학의 아버지'로서 추앙받았다.

벨 가문은 1937년 HCP 벨이 스리랑카에서 타계한 후 해당 목조 불상을 영국으로 가져왔고, 지금까지 100년간 가보(家寶)로 보관해 왔다. 불상의 가사와 불두의 장식은 칸디안(Kandyan) 왕조 시대(15~19세기)에 제작됐음을 추정케 한다.

케네스 벨 목사의 딸 피오나는 "고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그 작은 불상이 우리 가족 품에 왔다고 들었다. 나의 할머니는 약혼 증표로 불상을 받았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벨 가문은 최근 "목조 불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됐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뜻을 불아사에 전달한 후 벨 가족 일원은 '반환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햄프셔에 위치한 자택을 떠나 스리랑카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올해로 90세가 된 케네스 벨 목사는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앞으로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느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어린 부처님을 집에 돌려보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벨 목사는 "이것은 부처와 예수라는 두 분의 위인에 의해 전파된 불교와 기독교 간 평화와 통일의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케네스 벨 목사는 반환 기념식에 앞서서도 참석자들을 향해 "나는 이것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일보다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목조 불상은 이 법당으로 돌아와 다시 역사적 영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의 딸 피오나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인 행사"라며 "우리가 가져간 것을 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영국)가 수년 전 세계 각지를 식민 지배하던 사실을 모두가 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리랑카는 16세기와 17세기에 각각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 이후 1796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네덜란드가 프랑스에게 점령당해 네덜란드 왕실이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영국에게 실론섬 등 일부 지역을 넘겼다. 이에 1815년부터 영국이 스리랑카 전역을 식민지배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자치령을 받아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뤘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원 코끼리 학대… 국제사회 공분

英 메트로, 스리랑카 벨란일라사원 사육사 영상 공개

스리랑카 한 사원의 코끼리가 학대를 당하며 고통으로 울부짖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영국 일간매체 메트로(Metro)는 1월 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남부에 위치한 벨란일라 사원(Bellanwila Temple)에서 학대당하는 코끼리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벨란일라 사원의 사육사는 미안 프린스(Myan Prince)라는 이름의 15살 수컷 코끼리를 날카로운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리고, 코끼리는 더러운 물웅덩이에 힘없이 옆으로 누워있다. 코끼리의 두 다리는 쇠사슬에 묶여 나무에 고정된 상태다.

게다가 그들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괴로워하는 코끼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끼리 몸통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현지 동물보호단체(RARE)는 "미안 프린스가 학대당한 것은 꽤 오래된 것 같다"며 "사원 측은 이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코끼리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가급적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코끼리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미안 프린스를 보호구역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학대당한 코끼리 위에서 여유롭게 사진을 찍는 사육사의 모습. 사진출처=메트로

미안 프린스는 2018년 2월 스리랑카의 한 사원에서 먹이를 주려고 다가온 77세 수도승을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프랑스식 日 사찰요리 관심 급증

사찰서 운영하는 '좌선과 쇼진요리 모임' 인기

일본 전통 사찰요리인 '쇼진요리(精進料理)'에 새로운 시도가 더해졌다. 새롭게 프랑스 요리법으로 조리된 쇼진요리와 함께하는 좌선체험이 사찰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다. 1월 15일 일본의 '야후 뉴스'와 '텔레비전 사이타마'는 이 흥미로운 뉴스를 특별 보도했다.

사이타마현 카와고에(川越)시에 소재한 사이묘지(最明寺)는 13세기에 건립된 천태종의 고찰이다. 사찰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회를 열고 있는 사이묘지는 지난해 봄부터 새로운 좌선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좌선과 쇼진요리의 모임'이란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회 정원을 채우는 등의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전 일찍 좌선을 하고, 점심공양으로 회향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연 프랑스식 쇼진요리다.

먼저 법당에서 사이묘지의 부주지 치다 묘칸 스님의 설명에 따라 좌선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좌선을 하는 동안 후원에서는 쇼진요리가 조리된다. 요리를 맡은 이는 인근사찰 쇼센지(常泉寺)의 부주지인 오리하시 다이키 스님. 다이키 스님은 실제 프랑스 식당에서 셰프로 근무한 이색 경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요리법으로 조리된 쇼진요리. 사진출처=사이타마 텔레비전 보도화면 갈무리

모든 요리는 육류와 해산물을 일체 쓰지 않는 채식. 겉모습은 전통적인 쇼진요리지만 프랑스식 요리법을 이용해 조리된다. 다이키 스님은 "모든 재료는 지역에서 제철채소를 사용한다. 특히 신도들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처음 보는 식재료를 받기도 한다. 요리인으로서도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묘칸 스님은 "불교나 사찰요리에 대한 이미지가 변했다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한 사찰과 불교의 활용방안이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명상書 톺아보기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

〈2〉 분노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강한 에너지 '분노'



'Anger'는 영어단어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경, 그리스어로 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또는 산스크리트어나 티베트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한 것에서 'Anger'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즉 어떤 다른 언어로부터 번역된 것을 읽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의하면 Anger는 고대 노르웨이어의 Angr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곤란 고뇌 심지어 고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어원에 따르면 분노는 고통이고 고통을 느끼는데서 오고, 남에게 고통을 가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도 될 것 같다.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세 번째 정의 다음에 몇 가지 유용한 구절을 싣고 있다.

불쾌의 강한 정념이나 감정, 보통 상처나 모욕감에 의해 일어나는 적대감, 유의어로는 분노, 노여움, 격분, 격노, 분개, 진노가 있는데 이것들은 강렬한 불쾌감에 의해서 야기된 감정적 흥분을 의미한다.

분노는 이 그룹에서 포괄적인 용어이며, 맥락을 떠나서는 강렬함의 명확한 정도나 외면적 현현을 제시할 수 없다. 노여움은 아어로 치부되긴 하나, 좀 더 강렬한 것이다. 격분은 감정의 자기통제서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데 종종 일시적인 정신 착란을 암시한다. 격노는 격분 이상으로 압도적인 정념을 함축하며 광기에 가깝다. 분개는 깊고 강렬하며 종종 의분임을 강조하는데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것,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분노이다. 진노는 그 감정적 기반이 격분이나 분개를 의미하지만 보복하고 벌주고 복수하려는 욕망이나 의도를 의미한다.

내가 이렇게 길게 인용한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권위자들도 분노에 대해서 얼마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지를 이해하는데, 이런 불일치가 종종 실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의미론적인 것임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파괴적인 감정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가장 폭넓은 용어인 '분노'는 분명히 산스크리트어에서 핵심어인 '드웨사'(dvesa)의 정확한 번역어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신약성서서 사용된 그리스어 오르게의 정확한 번역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웹스터 사전과 옥스퍼드 사전 모두 '증오'를 분노의 유의어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흥미롭다. 거기서 '증오'는 '강렬한 싫음'으로 설명되는데,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질색하다, 몹시 진저리내다와 같은 계열의 동사이다. 그래서 '증오'는 좀 더 개념적, 정신적 태도이고, '분노'는 감정적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심리학은 '증오'와 '분노' 모두에 대해서 드웨사를 사용하는데, 사실 하나의 번뇌로서 드웨사는 증노(憎怒)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실제로 티베트어에서는 쉐당(zhe sdang)으로 번역하는데 쉐는 강력한 혐오를 당은 맹렬한 공격을 의미한다. 영어에서 증오와 분노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각각에 종은 것과 나쁜 것 두 종류가 어떤 식으로 있을 수 있는지를 단번에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좋은 증오는 진실로 나쁘고 불쾌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건전한 태도이다. 나쁜 증오는 다른 분위기나 다른 상황에서라면 좋거나 유쾌할 수도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좋은 분노는 선한 것에 방해가 되는 나쁘거나 불쾌한 것을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정신활동이다. 나쁜 분노는 선한 것을 파괴하려는 공격적인 정신활동이다. 당분간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정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구분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감정'으로 정의하면서 별로 비난하지 않는데, 그 것은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친구와 관련해서 부당하고 명백한 모욕에 대해서 명백한 복수에로의 충동이며 고통을 수반한다. 그것은 언제나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느끼는 것이다. 이것에는 언제나 모종의 즐거움(복수에 대한 기대로부터 일어나는 즐거움)이 따른다. 진노에 대해서 '그것은 천천히 떨어지는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연기처럼 사람의 가슴을 감싼다' 고 잘 말하고 있다. 분노에 모종의 즐거움이 따르는 이유는 앙갚음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떠오른 이미지들이 마치 꿈에서 떠오른 이미지들이 그러하듯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분노', 불쾌서 야기된 흥분
서양선 공포 극복수단 활용
불교선 '번뇌' 통칭해 정의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죄'의 일종이라거나 치명적인 것 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완전히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과 정상적인 정신태도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용한 분노에 대해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것을 '공포'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분노가 공포를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위협으로 인지한 것을 처리할 만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기술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공포로 마비될지도 모른다.

불교심리학은 공포를 분노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실제 아비달마 문헌에서는 감정과 심적 태도를 해부하듯 연구하여 목록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목록에는 공포가 없다.

유대인의 구약성경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가장 분노하는 자는 아마도 신 자신인 듯하다.

신은 세계를 창조하고 아담과 이브를 모든 동물과 함께 에덴동산에 살게 할 정도로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뱀이 이브를 부추겨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도로 확신을 심어주자 신은 노한다. 신은 뱀을 저주해서 다리를 없앤다. 그리고 이브를 저주하여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고 남자에게 종속되도록 한다. 또 신은 아담을 저주하여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당도 저주하여 힘들게 노동하지 않고서는 양식을 내놓지 못하도록 한다. 신은 아담과 이브 모두를 에덴에서 추방한다.

얼마 후 신은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노한다. 얼마 안 가 신은 '신의 아들'로 불리며 자신과 닮은 그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신은 자신의 마음에 무척 들었던 노아를 제외하고는 인간을 모두 파멸시키기로 결심한다. 노아는 허락을 받아서 가족, 친구들, 동물들과 함께 대피한다.

나중에 신은 바벨에 거대한 탑을 만들고 있는 인간들에게 노한다. 그래서 바벨탑을 파괴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무리들로 흩어지게 한다. 아브라함에게는 꽤 오랫동안 친절했지만 결국 신은 소돔과 고모라에 노해서 그곳을 멸망시킨다. 그런 후에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잘해 나갔지만 이들은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했다. 그들은 다음 세대까지 얼마간 노예 상태로 있었는데 모세가 태어나 마침내 그들을 자유로 이끈다.

모세와 함께 신은 광포해진다. 신은 모세를 시켜서 파라오에게 자유를 요구하게 한다. 그리고 파라오의 심정을 완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약간 양보하게 만든다. 그런 후에 또 파라오를 완고하게 하고는 이집트인들을 습격하고 최초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고 바다로 이집트인들을 유인, 그들의 군대를 파멸시킨다. 신은 바다를 건너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의 파멸시키도록 돕는다.

서양에서 신은 인간에게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 그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분노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한다. 신은 진정한 처벌자이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신의 이미지가 궁극실재의 인격화된 모델이라고 세뇌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란 탁월한 에너지이며, 탁월한 현시(現示)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분노하는 사람이 타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의를 압도할 정도로 강력하다는 한에서 말이다.

이 글은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대행 스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찌 그렇게 고달프게만 사십니까!

어떻게 맡겨 놓아야 하는 건지요

질문 인터넷 동영상에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마음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기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맡겨 놓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마음을 내기 이전은 바로 불성이라고 불가에선 하는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이다 이겁니다, 그게. 그래서 심봉과도 같다. 그래서 그거하고 내 현재 의식하고 계합이 된다면 50% 50%, 100%가 돼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찰나 생활을 그냥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만나는 거, 또 말하는 거, 엄마 만날 때는 자식이 되고 또 친구 만날 땐 친구가 되고, 동생 만날 땐 언니가 되고, 만약에 시집을 갔다면 남편 만났을 땐 아내가 되고, 자식 만날 땐 엄마가 되죠? 금방금방 그렇게 돌아가죠? 이게 찰나 생활이에요.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그게 금방 자동적으로 엄마를 만나면 딸의 행동을 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금방 "여보!" 그러곤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아내 노릇을 하죠. 그러니깐 이 세상은 그렇게 묘하고 자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 시스템을 해 놓고 거기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죠?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입력을 해 놓으면 앞서 건 없어지면서, 현실에 입력이 되는 게 들어가면서 자꾸자꾸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즐겁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찌 그렇게 고달프게만 사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제 집을 은행에다 잡혔는데 그게 그만 돈을 못 갖다 줘서 넘어가게 생겼대요. 그래서 울고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도 자꾸 도와주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알았다고 그랬는데 "한 열흘만 있으면 돈을 이렇게 좀 꿀 데가 있는데, 그게 나오면은 꼭 그걸 갚고선 그 집을 찾아야 할 텐데, 이제 우리 식구는 다 죽습니다." 이럭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 주인공이 바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 그것이 전자의 그 인과로 인해서 업보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니깐,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니깐 거기다가 '네가 한 거니깐 그걸 해결을 해 주는 것도, 증명을 해 주는 것도 너밖엔 없다.' 해결을 해야 증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깐 "'증명을 해 다오. 이게 되는 게 증명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맡겨 놔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 은행에서 그걸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넘기질 못하는가 했더니 서류가 없어졌대요, 은행에서. 그래 가지고 그걸 경매로 넘기질 못하고 있다가 이 사람네가 돈을 해 가지고 가니깐 그게 서랍 그 위 천장 있죠? 그 서류가 천장에 붙었다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돈을 갚고 집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성신은 체가 없기 때문에 만 개도 될 수 있고 천만 개도 되고 십만 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분신이. 납득 안 가죠? 옛날에 손오공 같은 거 보면 그 손오공이 똑같은 게 많이 이렇게 나오죠? 또 무술을 하는데 칼을 착 들고 이렇게 돌리니깐 칼이 수만 개가 되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게 대일승법이에요. 그러니깐 이 자체가 말로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이론을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배운 사람이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고 다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근데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아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이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 뭘 합니까? 나오긴 뭐가 나옵니까? 힘이 없는 걸로 나올 수밖에요.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거죠. 컴퓨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림 · 최주현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

질문 스님들께서 늘 일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 보면 참선 공부하는 데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생각을 할 때는 막연하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것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생활에 빠져 잊고 살게 됩니다. 올 새해에는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싶은데 막연하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확실하게 느껴 보고 싶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참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선을 한다, 와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 모두가 앉으나서나 생활이 그냥 참선이기 때문에 그걸 한데 합쳐서 참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앉아도 여러분이 앉은 것이고, 선 것도 여러분이 선 것이고, 눕는 것도 여러분이 눕는 것이고, 똥 누는 것도 여러분이 똥 누고, 먹는 것도 여러분이 먹고, 자는 것도 여러분이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부처는 없죠. 아니 부처만 없는 게 아니죠. 세상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론이나 학설, 말을 잘해서 연구를 잘하고 또 교리를 잘 알아서 체계 있게 한다고 해도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마음을 잡고 발견해서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고 생활이 과학인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애를 낳는 것도 바로 과학입니다. 벼를 심어서 쌀을 만드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 놓는 것도 과학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과학 아닌 게 없습니다. 어느 거는 과학이고 어느 거는 과학 아닌 것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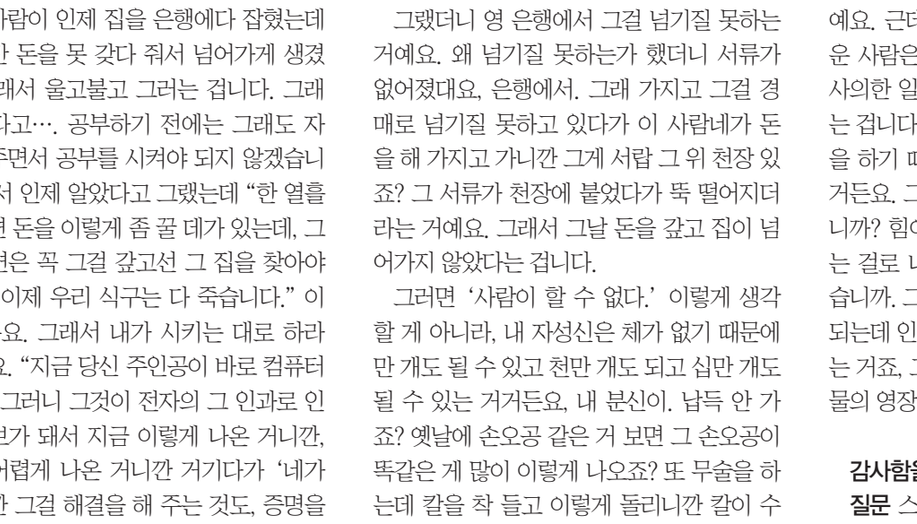
그래서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물리가 터지려면 이런 것도 좀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왜 스님네들이 허허벌판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냥 풀섶에 그냥 앉아 있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 데 앉아 있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 데 앉아 있기도 하고 높은 산골짜기에 앉아 있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쇳송을 했지만 '오종대은(五種大恩)을 알라,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생명 전체에 감사할 줄 알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내지 않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 · 수 · 화 · 풍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 세상 풀 한 포기도 감사히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곤충 하나도.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히고 먹으면서 이 세상에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진화돼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났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내 부모요, 어느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거듭거듭 거치면서 짐승의 부모도 됐다가 짐승의 자식도 됐다가, 곤충의 부모도 됐다가 곤충의 자식도 됐다가,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됐다가 딴 부모가 되고…. 거듭거듭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또

☞ 18면으로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으면 정신적으로 한 차원 올라서는 작업을 해야

☞ 17면에서 계속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인생살이가 같습니다. 그러니 남의 부모만 남의 부모고 내 부모만 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 도리가 바로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종대은을 아는 사람, 그 모두 둘이 아닌 줄을 아는 사람은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있다. 모든 데 착을 두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이 돈이고 흙이고 돌이고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돌아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 이거 끊어질까 봐 붙들고는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타의에서 구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진실되지 못합니다. 진실되게 믿으면서 진실되게 구하고 진실된 나를…, 참나를 구하는 소식을 그때서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 보시지마는 어떠한 경험을 얻는다 하더라도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기술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생활에서 행하면서 그대로 참선이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모든 거를 잘 살펴서 세 가지가 다 충분해야만 따르라고는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을 따르라고. 믿는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즉 수십억 마리를 마음으로 다스려서 한마음으로 묶어 세운다면 바로 주장자입니다, 그게. 그리고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면서도 찰나찰나에 돌아가니까 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풀잎 하나도 감사하고 저 물이 흘러가는 것도 감사하고…. 물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같이만 살았으면 아무 일 없을 텐데…." 물이 그럴 겁니다, 아마. "나는 어떤 게 막혀도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은 막히면 뚫고 나가려고 애쓰니깐 더 막히는 거지." 하고 흉을 볼 겁니다. 또 흙은 흙대로 자기처럼 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파 제끼고 해도 왜 파느냐, 아프다, 어떻다 한마디 없어요. 뒤집건 메꾸건 뭐, 짓밟건….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바로 그렇게 둘로 보지 않는다면 서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해요. 개가 그냥 서로 싸우는 거 같이 보이죠? 그건 사람들이 들에 부부가 나가면서 서로 장난하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사랑하는 소리가 그냥 사람이 볼 땐 싸우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를 나같이 알고, 즉 여러분같이 알고 감사히 생각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국왕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국민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부모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형제의 은혜도 알아야 하고, 모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죠. 혼자 산다면 옷도 입지 말아야 하고 먹을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뭐, 땅도 딛지 말아야 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 만유를 창조해 나가는 인연의 필연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큰 것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지혜를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하게 떼어 나간다면 그 안에서 물리가 터지는 기쁨과 고마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친에게 배신당해 너무 힘들어요

질문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절친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관하고 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지금 마음은 훨씬 더 괴로운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제가 부끄럽지만 이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 말씀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다수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조금만 아프거나 그러면 금방 병원에 간다 어디 간다 하면서도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 몰라서도 그렇지만 안다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나중에는 대처를 못 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 동물인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면 좀 더 마음을 계발하고 정신적으로 한 차원 올라서는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온통 야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자연히 편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가꾸고 건강한 듯해도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발전해 나가면 몸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행 상담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떡하면 장님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나. 그렇게 되진 말아야 할 텐데, 귀가 열리고 눈을 떠서 자유스럽게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그리고 영원히 걸어야 할 텐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버이로서 길잡이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자생 중생들이 수북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자생 중생들부터 내 마음으로 다스려서 천백억화신으로 출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관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모두 한생각을 다스려서 거기 굴려 놓는 데에 목적을 두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몸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식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만 그림자처럼 좇아가서,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타고 난다 하더라도 그 업식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니 우리 좀 더 분발해서…, 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는 사실을 일러 드릴 뿐입니다. 그 모든 살림살이를 바로 누구가 하고 있나.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일체 잘못되고 잘되고는 내 탓이라고 꼭 정정해야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의 미움을 받거나 남을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백날 해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신을 믿는 게 편한데

질문 불교는 자신을 믿는 종교인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다른 신을 믿고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한테 맡겨 놓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맡긴다는 거는…. 진짜로 누굴 지금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누구 이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죠.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똥 눠 줄 수 없고. 모든 게 그러니깐 자기 주처에 입력됐던 것을 자기가 다시금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네가 엎드려졌으면 네가 일어나라는 식이에요.

거기다 입력을 해 놓은 거를 없애면 내가 그릇이 비워지면서 아주 내가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부가 자 속에 들어 있고 자 속에 부가 들어 있거든요. 아버지! 자기 전생의 조상이에요, 영원한. 그것이 바로 이름 지어서 컴퓨터라고 하는 겁니다. 부는 어떠한 이런 개체가 아니라 전체에 한데 합쳐진 그 컴퓨터예요. 주처.

즉 말하자면 그거는 맷돌로 맷돌질을 하는데 아래에서 심봉이 꿰어지죠? 위의 거하고 아래 거하고 맞아야 되죠? 그래야 돌아가잖아요. 음과 양이 한데 합쳐져야 어린애도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래 위가 한데 맞춰지는 심봉이 바로 힘만 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심봉을 꽂지 않고 맷돌을 돌렸기 때문에 그 삶이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게 인과가 되고 업보가 되는 거죠. 지금도 내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전부 바깥에서 구하고 있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아, 이러곤 해 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제일 나중에 났어요. 왜냐.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진화해서 쫓기고 쫓으면서 이 인간까지 진화됐기 때문에, 다른 무정물이나 이런 것은 다 먼저 자랐지만, 인간은 진화돼서 오늘에 오는 과정이 수억겁 광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끌고 온 자기 장본인이 너무나 경험이 많고 너무나 그 힘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 힘이.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거기에다가 다시금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앞서 입력이 된 건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지면 그 상태로 나를 밝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뚱이에 있는 것도 전부 리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깐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고 거기다 맡겨 놓고 '거기서밖엔 해결 못 한다.' 또 무슨 일이 잘됐으면 '아, 감사하구나.', 이렇게, 이거를 속으로, 뜻으로 이렇게 믿어야지, 만날 바깥에서 주여, 무슨, 하나님 아버지시여, 관세음보살, 부처님, 지장님, 무슨…. 아이고! 불교고 누구고 다 통틀어서 그 바깥에서 그러하면 자기 영혼도 못 건져요.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누구라도 건져 주시나요

질문 부처님은 누구라도 건져 주시나요? 저처럼 막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생도 건져 주시나요?

답변 항상 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하는 건 어느 개별적인 하나를 놓고 "부처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그것을, 즉 말하자면 안팎이 없으면은 그대로 부처예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누구나가, 하다못해 죽여도 살리는 거고 살려도 살리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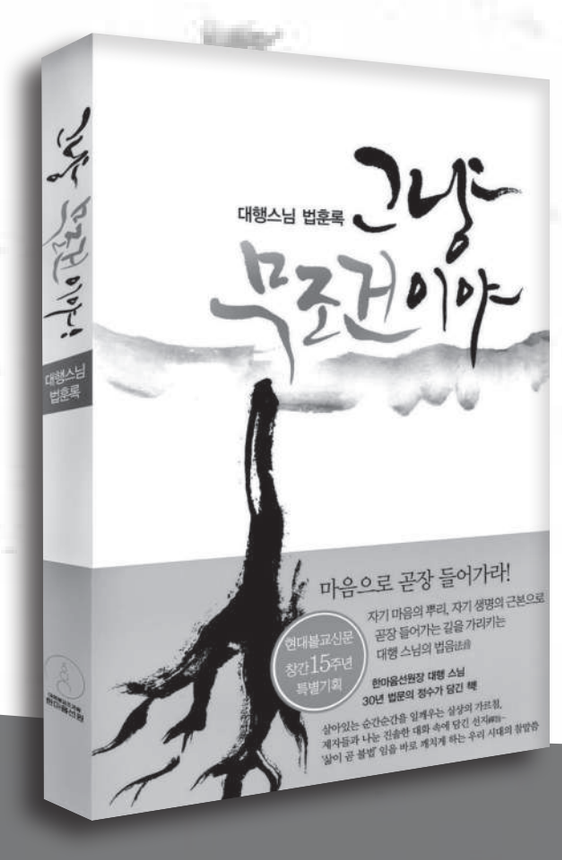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정성을 지극히 들였는데 그 이튿날 죽어 버렸어요. 아주 가난하고 그래서 깡패로다가 만날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랬으니, 그 신분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크게 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집어 주려야 집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만 그 몸이 그 이튿날 죽더라 이 소립니다. 그렇게 깡패 짓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뉘우쳐서 어느 스님한테, 그것도 그냥 보통 스님한테 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죽는 것도. 도인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그 참, 어린애처럼 사는 그 도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지금 "도인, 도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자기가 그냥 도둑질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좀 모아 놓은 거를 몽탕 다, 죽으려고 아예 줘 버렸어요, 그분한테. 내가 잘못한 걸 다 용서해 달라고 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곤 다 내놨죠. 그러고 개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턱 그 스님이 보니까 그렇게, 본래는 그렇게 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선 걸 보곤 그냥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그 이튿날 죽은 거죠. 그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여기 정성스럽게 다니는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그 이튿날 죽었으면 "아이구, 죽었다고? 왜 그 절에 그렇게 뭐…."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거기 나갔는데 왜 그 이튿날 죽었느냐? 시주를 이렇게 했는데 왜 죽었느냐?" 그럴 테지요. 그래 죽으니까 시자가 하는 소리가 그랬거든. "스님, 스님. 그 사람은 우리한테 시주를 이렇게 해서 지금 불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이튿날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이놈아! 이다음에 알 것이니 가만있어라." 이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깨치니까 그 도리를 알겠더라 이겁니다. '아, 스님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아무 데 아무 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그 도리를 보지 못하는 거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전구에 불 들어온 것만 보지 전력이 들어오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듯이 말입니다.

물이 그럴 겁니다, 아마.
"나는 어떠한 게 막혀도
그냥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은 막히면 뚫고 나가려고 애쓰니까 더 막히는 거지."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알아차림의 힘

명상을 10년, 20년 했어도 진전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핵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핵심, 불교의 핵심은 '알아차림' 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란, 윤회란 산란함입니다. 산란함이란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 살고 생각 밖은 모릅니다. 그저 생각이 좋으면 행복하고 생각이 안 좋으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넘어서면 마음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성의 무한한 사랑, 힘, 지혜 등을 경험하려면 '알아차림' 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을 '사마타' 라고 합니다. 사마타란 마음이 고요하고 여유롭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타가 되면 통찰이 오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비결은 알아차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 에 달려 있어요. 의도가 알아차림을 자주 경험하게 합니다. 의도를 갖고 강화하는 것이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키포인트입니다. 의도 없이 살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의도는 알아차림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 겁니다. 불 밝게 켜고 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수행이며 알아차림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수행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업장소멸 공덕자량입니다. 하루하루 의도를 가지고 살면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잘 안 되지만 1년 뒤에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요. 수행의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설거지 하면서 알아차림을 다섯 번 가지는 것이 절에 다섯 번 가서 소원 비는 것 보다 공덕이 더 큽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② 실크로드–병령사 석굴서 가욕관까지

황하는 바다로 흘러든다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란저우(蘭州)는 중국의 심장인 황하(黃河)가 가로지르는 곳으로 유명하다. 황하의 누런 강물이 도도히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당대의 서역개척자인 장건(張騫)의 웅혼한 문장이 떠올랐다.

"곤륜산을 타고 흘러내린 차가운 물사태가 사막 한가운데인 염택에서 지하로 자취를 감추고, 지하로 잠류하기를 또 몇 천리. 청해에 이르러 그 모습을 다시 지표로 드러내어 장장 8,800리 황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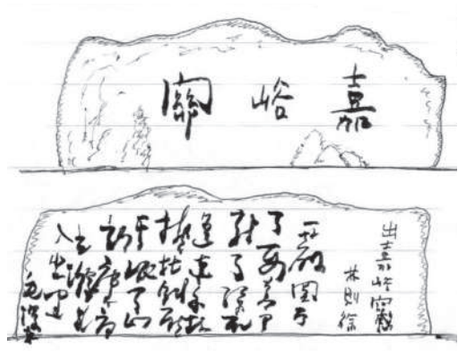
위당 정인보 선생이 김구 등 임정요인 귀국환영회에서 이를 들어 감격을 표현했다고 한다. 필자는 이 문장을 보면 불교나 선불교, 혹은 조계종의 역사를 보는 듯 가슴 뭉클한 심정이다. 그 옛날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나 천축으로의 구법을 했던 숱한 천축구법승들과 대당유학승들이 생각나서다. 그들의 피땀 어린 구도열과 위법망구의 보살행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불교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한국불교와 우리 자신은 황하에 비유하면 과연 어디쯤에 서 있고,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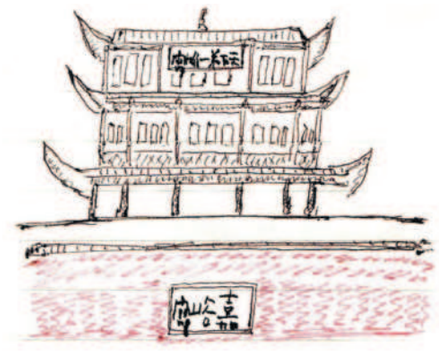
황하가 바라보는 곳에 황하의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석상이 있다. 마치 관세음보살이 선재동자를 품고 있는 듯하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구법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순례와 비슷한지라 무장무애와 원만회향을 빌어본다. 황하에는 양의 내장에 바람을 집어넣어 잔뜩 부풀린 채, 여러 개를 엮어 뗏목을 만들어 타고 다닌다. 문득 이곳에서 평생동안 선자화상(船子和尙)처럼 뱃사공이 되어 미혹한 이를 피안의 언덕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병령사(炳靈寺) 석굴로 가려면 보트를 타야한다. 유가협 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병령사 석굴은 소적석산(小積石山)에 있는데 실크로드의 길목인지라 승려와 상인들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 여행길에 올랐다고 한다. 이곳에는 183개의 석굴에 불상이 776체나 봉안되어 있다고 한다. 서진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 1,500여 년에 걸쳐 조성된 것들이다.

대부분의 석굴들이 굴을 파고 그 안에 불상과 벽화 등을 조성한 것과는 달리, 병령사 석굴은 굴을 파지 않고 암벽 자체를 조각한 마애불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곳의 백미는 단연 제169호 석굴이다. 석굴이 가장 크고 불상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병령사 석굴 제169굴과 만리장성 서쪽 관문 가욕관 입구.

란저우, 실크로드 요충지 '유명'
병령사 석굴, 서역행 주요 지점
서진~청대 1500년 걸쳐 조성돼

제171호굴에는 높이 27m의 현암좌불의 대불이 있다. 그 앞에서 대중이 모여 부처님께 예불을 올렸다. 반대편에서 바라다보면 대불 아래 예불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워 눈물이 났다고 한다. 매양 느끼는 것이지만 스님들이 한데 모여 예불 드리는 모습만큼 장엄하고 감동적인 모습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의식 자체가 불교를 보여주는 문화이자 전법교화의 방편인 동시에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예불 올리는 스님들조차 감동해 눈물을 다 흘릴 정도이다.

우리 일행 중에는 청출(청암사 승가대학 출신)이 7명이나 함께 순례를 왔다. 그들이 우리 1호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일명 '칠딱서니파' 가 그들이다. 아직 젊어서인지 철딱서니는 없어도 그 자체로 신선하고 활달한지라 보기에 참 좋다. 이 스님들이 마치 여고생 수학여행이라도 온 듯이 천방지축에 난리법석이다. 그래서 "누가 너희들 두목이냐"고 물으니 당돌하게도 "혜총 스님(조계종 前포교원장)이요"라고 한다. 어쨌든 우리 순례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가욕관(嘉峪關)은 만리장성의 서쪽 끝 관문으로 유일하게 건설 당시 그대로 남아있는 건축물이다. 최동단의 산해관(山海關)은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 이라 칭하고, 가욕관은 '천하제일웅관(天下第一雄關)' 이라고 부른다. '천하제일웅관' 글씨는 중국불교협회장을 지낸 작고한 조박초(趙樸初) 선생의 웅혼한 필체이다.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을 보는 듯 천의무봉의 솜씨이다.

가욕관성에 오르니 멀리 기련(祁連)산맥의 설산 영봉이 끝없이 이어지고, 눈을 서쪽으로 돌리니 실크로드 사막길이 몽환처럼 아른거린다. 이성을 나서면 이젠 미지의 사막이자 목숨을 건 사투가 끊임없이 펼쳐지리라.

당대 왕창령의 '종군행(從軍行)' 이란 시에 "푸른 바다 긴 구름 설산을 가리고 외로운 성채에 올라 아득히 옥문관을 바라본다. 사막에서의 온갖 싸움에 황금옷 다 헤어져도 누란을 격파하지 않고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라는 글이 생각난다. 아마도 이곳에 선 천축구법승의 마음도 이와 같았으리라. 어쩌면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이 길을 떠났을까?

나도 그 천축구법승의 마음으로 길 위에 섰다. 당대 왕지환의 '등관작루(登鸛雀樓)' 라는 시에 "해는 서산에 지고, 황하는 바다로 흘러든다. 천리를 보고자 할진댄, 다시 한 층 누각을 더 오르거라(白日依山盡 黃河入海流 欲窮千里目 更上一層樓)"라고 했다. 누군가는 시대와 역사를 앞서 나가며 새로운 모험과 도약을 이루어야만 한다. 한 층 누각을 더 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조계종 교육부장〉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